

KOTRA 인도비즈니스뉴스레터(2024.12월)

주요 내용

- 1 이달의 주요기사 (일간지 주요기사 요약) / 1
 - 1 경제동향 및 전망 / 1
 - 2 산업별 주요 뉴스 / 11
 - 산업 전반 / 11
 - 자동차·부품 / 12
 - 통신·스마트폰 / 17
 - 조선업 / 21
 - IT·전자제품 / 23
 - 소비재 / 27
 - 철강 / 28
 - 에너지·인프라 / 29
 - 기타 / 30
 - 3 외국인 투자유치 / 32
 - 4 수입규제 / 32
 - 5 세제 및 규제변화 / 35
 - 6 무역협상·대외관계 / 36
- 2 이슈 포커스 (글로벌 경제외교 전문지 인도 경제 테마 기사 요약) / 38
- 3 시장트렌드 (인도시장 관련 KOTRA 해외시장뉴스 안내) / 47
- 4 주요 경제지표 / 48

※ 문의처: KOTRA 인도비즈니스협력센터(jeongsunny@kotra.or.kr, girish217@kotra.or.kr)
뉴스레터 이메일링 서비스 신청 링크: <https://forms.gle/MHUiYMtF85A6cZsw8>

1 이달의 주요기사

1 경제동향 및 전망

< 트럼프 당선에 따른 인도 경제 영향 전망 >

○ 싱크탱크 GTRI, 트럼프 당선시엔 관세인상, 비자규제 강화 우려

인도의 싱크탱크인 국제무역연구기관(GTRI)은 트럼프와 해리스 당선시 인도의 무역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는 있지만, 노동법과 환경법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이어서 인도 수출업체들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음.

“트럼프는 인도를 과거에 “관세 왕”으로 지칭하며 비판한 바 있어, 재선이 되면 무역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GTRI 설립자인 스리바스타바는 평가함. 아울러, 미국 우선주의 아젠다에 따라, 인도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같은 보호주의 조치를 통해 자동차, 와인, 섬유 및 의약품과 같은 인도 주요 수출품에 대해 수입장벽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힘. 트럼프는 재임기간 동안 인도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으며, GSP 수혜국 목록에서 인도를 제외시킨 바 있음.

기후 정책에서 트럼프는 과거 파리기후협약과 같이 UNFCCC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 기준이 완화될 수 있음. 이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같은 친환경 정책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취업비자 측면에서도 트럼프는 비자 규제를 강화하여 인도 IT 전문가들의 미국 진입을 제한하고, 인도 IT 기업들의 운영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Trump may raise tariffs for India; Harris likely to be tough on labour’, BL(11.6)

○ 트럼프 2.0 행정부에서 對中 관세정책 강화시, 인도 제조업계 수혜 예상

트럼프는 중국산 스마트폰, 랩탑을 25% 반덤핑 관세 품목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됨. 현재 인도가 생산하는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은 대부분 내수용이고, 수출제품은 애플, 삼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중국산에 대한 미국 관세장벽이 더 높아지면, 인도 제조업에 대해 홍수와 같은 기회(floodgate)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딕슨 테크놀로지 MD가 밝힘. Barclays는 중국의 GDP가 트럼프 집권에 따른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로 인해 원자재 가격도 감소해, 원자재 순수입국인 인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이 소싱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는데(부품 원산지 규정 강화 등), 전자부품 제조 허브로 거듭나려는 정부계획과 부합하여, 인도 기업에는 수혜요소임.

Systematix Group의 수석 부사장인 비샬 만찬다는 미국 바이오보안법(미국 기업이 일부 중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도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신규 정권이 들어선 후 미국에 수출하는 인도 제약업체에 대한 전망은 중립적인 경향에서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함.

다만, 현재 알려지지 않은 변수는 트럼프가 인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임. 그는 인도의 관세가 포획적(predatory)이라고 얘기한적이 있는데, 인도를 어떻게 대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라주고엘 인도 전자산업협회 사무총장이 언급함. 지난달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는 외국 제품에 대한 인도의 관세를 비판하고(인도를 관세왕이라고 부름), 선거에서 승리하면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xes)를 도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신행정부의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한편, 비스와짓 다르 사회개발위원회 석좌교수는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만큼 가혹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 기업과 거래하는 인도 기업에 대한 압박도 덜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Trump's China tariff wall could electrify manufacturing @ home', ET(11.7); 'Modi congratulates 'friend' Trump on winning US President elections', BL(11.7); 'Trump 2.0: A new era in India-US relations?' BL(11.7); 'Pharma industry may not be impacted', BL(11.7)

○ 인도 수석경제고문 나게스와란, "트럼프 2.0 정부에 인도는 더 잘 준비되어 있다"고 평가

CEA는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의 프로그램이 대부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이어졌다는 점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정책 연속성을 희망했지만 인도는 가능한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지적함.

나게스와란 수석경제고문은 "우리는 숙제를 하고 무역 정책 등의 측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그런 다음 구체화되는 대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함. 그러나 인도의 대응 가능성에 대한 가상의 질문에 설불리 대응하기 전에 "인도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덧붙임.

그는 "트럼프 관세가 인도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미국과의 양자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 중인 인도에는 압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며, "(압박을 받는 부분 중) 일부 분야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 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함.

아울러 그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으로부터 멀어지는 변화를 활용하려면 인도가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규모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상상력의 확장이 필요하다. 우리는 글로벌 규모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밝힘.

나게스와란은 2월 1일 예산안을 앞두고 발표될 다음 경제 조사(Economic Survey)에서는 여러 부문의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India Gearing up for Any Change in US Policy: CEA' ET(11.14)

'Don't Bank Much on Exports Under Trump amid Trade Slowdown: CEA', ET(11.20)

○ 인도, 미국과 국방 관계는 심화 기대.. 미국산 군사 HW, SW 구매 확대 압박 받을 수도

인도는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에 대한 공통된 우려를 감안할 때, 트럼프 2.0 행정부 하에서 인도와 미국의 국방 및 전략적 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평화를 중재하여, 인도가 직면하고 있는 공급망 제약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있음.

그러나 정부와 업계의 국방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군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도록 압박하여 30억 달러가 넘는 MQ9B 드론 31대와 같은 대형 거래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함.

미국은 인도가 향후 10년간 군대 현대화를 위해 지출할 2,000억 달러의 파이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인도의 대러시아 국방 무기 의존도를 낮추고자 함.

자료원: 'India eyes closer defence ties with US' BL(11.8)

○ 씨티그룹 부회장, '인도, 트럼프 2.0시대에 세계에서 2번째 투자처로 등극' 전망

Viswas Raghavan 씨티그룹 부회장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인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투자 대상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함. 미국이 여전히 최고의 투자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도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고 강조함.

트럼프 당선인의 제조업 회귀 정책이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전략에 변화를 일으키는 가운데, 인도 또한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Raghavan은 인도의 에너지, 인프라, 소비자 부문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밝힘.

그는 또한 인도가 충족되지 않은 내수와 소득 증가로 인해 최고의 시장이 되었다고 평가함. Raghavan은 정부가 제조업에 힘을 쏟고, 새로운 부유층이 부상하고, 경제가 주요 시장 중 가장 높은 연평균 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 흐름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봄. "문제는 밸류에이션에 관한 것"이라고 그는 지적하며. "거의 3~4년 동안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을 보고 있다."고 밝힘.

인도 주식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달러 기준으로 신흥국 시장 중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함. 그러나 이익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향후 수익의 22배가 넘는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이자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이 지난 두 달 동안 130억 달러를 매도한 바 있음.

자료원: 'During Trump 2.0, India Second Only to US for Investors', ET(11.18)

○ 인도, 러시아산 원유 의존 지속 전망...미국과는 장기수입계약/저장방안 협력 가능

인도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대폭 축소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됨. S&P Global Commodity Insights는 인도가 기존의 가격 차익거래를 활용해 러시아산 원유의 조달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미국과의 장기 수입 계약 및 저장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전망함.

현재 러시아는 인도의 원유 수입에서 약 38~40%를 차지함. 인도는 전체 에너지 수요의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장 저렴한 공급처에서 구매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함. 러시아산 원유는 매력적인 할인을 덕분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음.

S&P의 Abhishek Ranjan은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실제로, 러시아산 우랄유와 브렌트유 간의 할인율은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음. Platts 데이터에 따르면, 8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 할인율은 배럴당 약 12.1~12.3달러로 집계됨.

한편, S&P는 미국의 인도 원유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함. 1월부터 9월까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하루 평균 170만 배럴로, 인도의 최대 공급국 자리를 꿰찼음. 같은 기간 동안 미국산 대인도 원유 수출은 21만 5,000배럴로, 인도의 다섯 번째 원유 공급국에 그침.

자료원: 'Trump factor: India unlikely to cut back on crude imports from Russia', BL(11.19)

○ 인도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축제 시즌 수요 회복에 힘입어 57.5로 상승

S&P Global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축제 시즌 수요가 회복되면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0월 57.5를 기록하며, 9월의 8개월 최저치였던 56.5에서 상승함. PMI는 50을 기준으로 경기의 확장(50 이상)과 위축(50 미만)을 구분하며, 이번 상승은 인도 제조업의 활성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됨.

자료원: 'Manufacturing gains pace; Oct PMI up at 57.5 on rising demand', BL(11.5)

○ 10월 서비스 PMI 지수, 58.5까지 상승 (9월은 57.7 기록)

한편, 10월 제조업 PMI 지수는 57.5를 기록함. (9월은 56.5 기록)

자료원: 'Services PMI rises to 58.5 in October', BL(11.7)

○ 비싼 채소 가격으로 인해, 10월 물가상승률 14개월만에 최고치인 6.2% 기록

10월 물가상승률이 13개월 만에 통화정책위원회(MPC)가 허용하는 범위인 2~6%를 돌파함.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12월에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낮고, 내년 2월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인도 레이팅스 앤 리서치(Ind-Ra)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파라스 자스라이는 우호적인 기저효과와 겨울이 시작되면서 채소가격 상승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Costlier veggies drive Oct inflation to 14-month high', BL(11.13)

○ 인도중앙은행,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하면 실물 경제 전망 해칠 수도

10월 소매 인플레이션이 급등한 후 인도중앙은행(RBI)의 경제 현황 보고서는 물가 상승을 방치할 경우 실물 경제 전망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식품 가격 상승의 파급 효과를 경계하고 핵심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우려' 수준이라고 평가함.

11월 RBI 게시판은 성장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민간 소비가 내수의 원동력으로 돌아왔고 라비 작물 전망이 농가 소득과 농촌 수요에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10월 인플레이션 수치는 6.21%로 RBI의 허용 범위(4%)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음.

RBI 직원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우려스러운 점은 식품 가격의 모멘텀이 급등하는 것과는 별개로 근원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함.

자료원: 'Unchecked inflation can hurt real economy prospects: RBI report', BS(11.21)

○ 9월 산업생산지수(IIP), 전년동월 대비 3.1% 증가

8월 -0.1%(22개월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우호적인 기저효과와 축제 전 재고 확보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최근 둔화되는 도시 수요로 인해 산업생산 지수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자료원: 'Industrial Output Expands 3.1% in Sept on Base Effect, Festivals' ET(11.13)

○ 인도 정부, FY25 GDP 성장률 전망치 6.5-7% 고수

경제부 차관 아제이 세스는 올해 경제 조사에서 예상한 FY25년 성장률 6.5-7%에 대한 하방 위험이 크지 않다고 지난 수요일(11.20) 개최된 FICCI의 제97회 총회에서 밝힘. 이는 재무부 고위 관리가 9월 분기에 특정 상품과 서비스의 일부 둔화를 인정한 가운데 이뤄진 것임.

"10월의 전자 운송장 및 전자 송장과 같은 지표는 6.5-7% 추정치에서 하방 위험의 가능성을 암시하지 않는다."라고 세스 차관은 덧붙임.

정부 자본 지출에 대해 세스 차관은 FY25년 예산 추정치인 11.1조 루피가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완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발언함.

"자본 지출이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작년 설비투자 규모인 약 9.5조 루피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 부문은 둔화되고 있지만 추가 수요가 있는 부문도 있다."고 밝힘. 작년에 인도 정부는 예산으로 책정된 9.5조 루피의 95%를 사용했음. "올해도 거의 같은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세스 차관은 덧붙임.

자료원: 'Govt sticks to FY25 GDP growth forecast of 6.5-7%' BL(11.21)

○ ET 경제학자 설문조사 결과.. 몬순 영향으로 2분기 경제성장률은 둔화 우려.. FY25 경제성장률은 낙관

최근 ET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몬순 영향으로 소비 및 투자가 둔화되면서 인도의 2분기(7~9월) 분기 경제성장률도 둔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설문조사 중간 추정치는 6.8%로, 작년 2분기(8.1%)와 올해 1분기(6.7%)보다 낮음. 인도중앙은행(RBI)은 이번 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2%에서 7%로 하향 조정했으며, 공식 수치는 11월 29일 발표될 예정임.

HDFC Bank의 Sakshi Gupta는 2분기 디젤과 전기 소비가 감소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8월과 9월에 내린 폭우로 인한 것이라고 풀이하며, 승용차와 이륜차 판매도 둔화되었다고 덧붙임.

ICRA의 Aditi Nayar는 폭우로 인해 광업, 전력, 소매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9월 분기 GDP 성장률이 6.7%, 총부가가치(GVA) 성장률은 6.4%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기업 실적도 둔화됨. ETIG가 7~9월 175개 기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 성장률은 7.2%, 순이익 성장률은 2.5%로, 모두 최근 몇 분기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농촌 수요 회복과 非프리미엄 소비의 잠재적 증가에 힘입어 올해 6.8~7.1%의 성장률을 예상하며 FY25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Bank of Baroda의 Madan Sabnavis는 소비가 두 자릿수 성장하고 투자가 8~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세계은행과 IMF는 인도의 FY25 성장률 전망치를 7%로 유지하고 있음.

자료원: 'Growth may Have Slipped in Rainy Q2 but Forecast for Fiscal is Sunny', ET(11.4)

○ 2분기 실적 악화로, 다수 기업 FY25 수익(earning) 전망 하향조정

Refinitiv 데이터에 따르면 최소 5명의 애널리스트가 각각 추적하는 410개 기업 중 264개 기업에 대해 FY25 수익(earning) 전망이 하향 조정됨. 129개 기업에 대해서만 수익전망이 상향 조정됨.

애널리스트들은 고금리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수요 악화로 인해 영업이익을 확대가 둔화되면서 수익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함. 9월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 화학, 제약, 건축 자재, 은행, 금융 업종 기업의 수익전망이 하향 조정됨. 화학업종이 24개로 가장 많이 하향 조정됨.

자료원: 'Weaker Q2 Numbers Bring a Flood of Earnings Downgrades' ET(11.13)

○ 모건 스탠리, 인도 FY25 GDP 성장률 6.7%로 하향조정

모건 스탠리는 인도의 FY25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에서 6.7%로 하향 조정함. 이는 7~9월 분기 GDP 성장률이 6.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9월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4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8월 핵심 산업 생산은 41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함. 또한, 제조업 PMI는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승용차 및 이륜차 판매도 부진을 보임.

그러나 모건 스탠리는 농업 활동 증가와 정부 지출 확대를 바탕으로 하반기 성장률이 6.7~6.8%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FY26에는 강력한 내수를 기반으로 6.5%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특히 농촌 소비 회복과 공공 및 가계의 자본 지출이 투자 증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모건 스탠리 리서치는 인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가 2025년 4월 회의에서 첫 번째 정책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함. "식품 가격 안정화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금리인하 여지(50bp)가 생겼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5년 2Q(4월 회의)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모건 스탠리 그룹 리서치의 인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우파사나 차크라는 언급함.

인도 중앙은행은 2023년 2월 이후 정책 금리를 6.5%로 동결한 바 있음. 높은 소매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다가오는 2024년 12월 회의에서 통화정책위원회(MPC)는 정책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널리 예상됨.

자료원: 'Morgan Stanley trims FY25 GDP forecast to 6.7%', BL(11.19)

○ S&P 글로벌, 인도 FY26 성장률 전망 6.7%로 하향 조정

S&P 글로벌은 지난 월요일(11.25), 인도의 FY26 성장률 전망치를 6.9%에서 6.7%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함. 지속적인 식량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어, 인도 중앙은행(RBI)이 금리 인하를 지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전문가들은 RBI가 이번 회계연도 내 금리를 한 차례만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자료원: 'S&P cuts India's FY26 GDP forecast to 6.7%', BS(11.26)

○ 인도 정부, FY25 자본지출 목표 11.11조 루피 달성 낙관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월요일(11.11) 정부가 이번 회계연도의 자본 지출 목표인 11.11조 루피를 달성 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필요한 경우 현금 관리 지침에 따른 규제가 1월~3월 분기에 완화될 수 있다고 밝힘.

참고로, 각 부처는 1~3분기 동안 예산 추정치의 최대 25%를 지출할 수 있음. 4분기의 경우 상한선은 33%임. 이러한 한도는 현금 흐름을 고려하고 12개월에 걸쳐 지출을 균등하게 분산하기 위한 것임.

이 관계자는 1~3월 분기에도 완화된 지출 기준이 계속될 수 있다고 밝힘. 이는 전체 FY25 전체 목표인 11.11조 루피에 비해 4~9월 기간 동안 실제 자본 지출이 5조 루피 미만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임.

자료원: 'Govt hopeful of meeting FY25 capex target of ₹11.11 lakh cr' BL(11.12)

○ 인도 기업, FY25 하반기에 자본지출 신중모드 vs. 인도중앙은행은 민간투자회복 기대

인도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던 바, FY25 하반기에 신중하게 자본지출(CAPEX)을 추진할 계획임.

주요 기업별 자본지출 계획은 다음과 같음.

- Reliance Industries는 FY25 상반기 자본지출이 전년 동기 7,846억 루피(약 93억 달러)에서 6,280.7억 루피(약 74.7억 달러)로 감소함.
- JSW Steel는 FY25 자본지출 가이드스를 2,000~2,500억 루피(약 23.8~29.7억 달러)에서 1,600~1,700억 루피(약 19~20.2억 달러)로 하향 조정함.
- Adani Ports는 FY25 상반기에 400억 루피(약 4.8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연간 목표는 1,150억 루피(약 13.7억 달러)임.
- ACC (Adani Group)는 FY25에 100억 루피(약 1.2억 달러) 투자 목표를 설정함.
- Tata Power는 9월 분기에 520억 루피(약 6.2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FY25에 2,000억 루피(약 23.8억 달러)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음.
- Reliance Infrastructure는 마하라슈트라에 폭발물, 탄약, 소형 무기 제조를 위한 통합 시설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간 1,000억 루피(약 1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하지만, 인도 중앙은행(RBI)은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민간 투자회복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음. FY25 1분기(4~6월)에 계절조정설비가동률이 개선되고, 은행과 기업의 양호한 대차대조표 등에 힘입어, 민간기업 투자가 모멘텀을 얻고 있다고 분석함. 주요 경제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소비와 투자도 당분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봄.

자료원: 'India Inc sends mixed signals on H2FY25 capex path', Business Standard(11.5)

○ 인도 정부, 재정건전화 위해 FY26 예산 내 자본지출을 급격히 확대하지는 않을 전망

인도 정부는 FY26 예산에서 자본 지출을 합리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정부는 자본지출 확대를 고려하고 예년 보다는 확대폭을 완화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FY25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를 4.9%로 설정했으며, FY26년 목표는 4.5%임.

자본지출의 정확한 배분과 세부 사항은 일반적으로 2월 초에 발표되는 예산안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임. 재무부는 이미 11월 11일에 여러 부처와 예산안을 위한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임. 참고로, 인도 정부는 FY22부터 매년 자본지출을 17%에서 39%까지 급격히 늘려왔음.

자료원: 'Govt may not Sharply Hike FY26 Capex Outlay to Keep Fiscal Deficit in Check', ET(11.26)

○ 트럼프 당선 여파로, 달러대비 루피 환율 84.28로 밀리며 최저치 경신

지난 수요일(11.6), 달러대비 루피 환율은 84.28까지 밀리며(-0.2%) 6월 20일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후, RBI 개입에 힘입어 84.11로 마감함. 하지만, 홍콩 달러(-0.03%)를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국가 통화보다는 낙폭이 제일 작았음.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강달러를 선호한다는 사실과 집권 이후 예상되는 포퓰리스트 조치에 따른 결과가 반영된 것임.

한 국영은행의 딜러는 "새로운 루피 환율 저지선은 84.50이 될 것"이라고 예측함.

자료원: 'Biggest fall in nearly 5 months pulls down rupee to fresh low', BL(11.7)

○ 글로벌 지표약세와 달러 강세로 인해 벤치마크 지수 1% 하락

지난 화요일(11.12) 벤치마크 지수는 글로벌 지표 약세와 달러 강세로 1% 하락하며 4개월 반 만에 최저치로 마감했음.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도 하락세로 마감했는데,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무역 정책의 영향에 무게를 두었음. 9월 말 100에 가까웠던 달러 인덱스는 106선에 근접하며 신흥국 통화에 압력을 가함.

센섹스 지수는 820포인트(1.03%) 하락한 78,675로 마감했고, 니프티 지수는 257포인트 하락한 23,883으로 마감함. 중형주와 소형주 지수는 1.1~1.3% 하락하는 등 시장 전반에 걸쳐 저조한 성과를 나타냄.

FPI는 화요일에 300억 루피 이상의 주식을 매도함. Motilal Oswal Financial Services의 자산 관리 리서치 책임자 싯다르타 캄카는 9월 말부터 지속된 FPI의 매도세가 예상보다 부진한 2분기 실적과 함께 시장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함. "글로벌 및 국내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투자 심리를 계속 약화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격적인 무역 정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루피화가 오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추가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경고함.

자료원: 'Markets sink on weak global cues, strong dollar', BL(11.13)

○ 인도 외환보유고, 주단위 사상 최대 낙폭 기록

인도 중앙은행(RBI)이 금요일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15일로 끝나는 주에 인도의 외환(외환보유고)은 177.6억 달러 감소하여 주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여 4개월 만에 최저치인 6,578억 달러를 기록함.

이러한 하락은 미국 달러 강세와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달러 판매에 기인함. "RBI는 지난 3개월 동안 루피화를 보호하기 위해 달러를 매도해 왔다. 이 외에도 8월과 10월의 수입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업체들도 미수금을 충당하지 못해 달러 매수가 매도보다 많았다."고 Finrex Treasury Advisors의 재무 책임자인 아닐 쿠마르 반살리는 언급함.

이전 주간 외환보유액 최대 하락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24일에 기록된 155억 달러였음.

외환 보유고는 9월 27일 7,05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감소했음.

"미국 달러의 대폭적인 강세로 인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외화와 금의 가치가 하락하여 전체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했다."라고 자나 스몰 파이낸스 은행의 재무 및 자본 시장 부문 사장 겸 책임자인 고팔 트리파티(Gopal Tripathi)는 언급함.

"이전에 103~104 정도였던 달러 인덱스가 현재 107.5까지 상승하여 외환보유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트리파티는 말하며, 루피화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러를 매도한 것이 외환보유액 하락에 더욱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11월 15일로 끝난 주에 루피화는 달러 대비 0.04% 하락하여 전주 대비 0.46% 하락했음.

이달 들어 지금까지 달러 대비 0.46% 하락했음. 루피화는 지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 하락 압력을 받아왔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신흥국 통화에 압력을 가하고 있음.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루피는 대부분의 아시아 통화에 비해 하락폭이 작은 편임.

자료원: 'Forex reserves log sharpest weekly drop' BS(11.21); 'Rupee Stronger than emerging market peers', BL(11.21)

○ 싱크탱크 GTRI, 2030년까지 인도 서비스수출이 상품 수출 추월 가능

인도는 2030년까지 서비스 부문의 수출이 상품 수출을 추월하고 6,1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출 추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싱크탱크 GTRI는 수요일(11.20) 밝혔. FY19년부터 FY24년까지 인도 상품 수출은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서비스 수출은 10.5%의 견고한 CAGR로 급성장함.

자료원: 'Services sector may outpace goods exports by 2030: GTRI', BS(11.21)

○ IMF, FY47 목표 달성 위해, 매년 8~8.5% 성장해야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태평양 부서의 Krishna Srinivasan 이사는 인도가 2047년까지 선진 경제(Viksit Bharat, Developed India)로 도약하려면 심도 있는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고 연평균 성장률이 8~8.5%에 달해야 한다고 주장함. 참고로, IMF의 FY25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7%임.

자료원: 'India Must Grow at 8-8.5% to Hit FY47 Target', ET(11.4)

○ 골드만삭스 보고서, 인도 FY24-FY30 사이에 1,000만 개 일자리 창출 필요

골드만삭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FY25부터 FY30 사이에 매년 약 1,00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해야 6.5%의 GVA(부가가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함. 이는 FY00부터 FY23년 사이 평균적으로 매년 85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된 결과와 대조적임.

지난 23년간 인도에서 약 1억 9,6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는데, 이 중 2/3가 FY13~FY23사이에 창출됨. FY20년-FY23 사이, 인도는 연평균 2,6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이는 농업과 서비스 부문 내 일자리 증가에 따른 것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농촌 지역으로 근로자들이 많이 돌아갔기 때문이고, 정부 보조금을 통해 이들에게 안전망이 제공됨.

서비스 부문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비즈니스 서비스(경영컨설팅 서비스, 과학연구 및 개발)와 소매업/도매업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크게 기여함.

제조업 부문에서는 FY21-FY22년 사이에 연평균 24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남. 인도 정부가 도입한 생산 연계인센티브(PLI) 덕분인 것으로 보임. 지난 10년간 화학 및 기계와 같은 자본 집약 산업이 섬유 및 신발과 같은 노동 집약 산업에 비해 고용증가율이 더 높았음.

2035년까지 노동 가능 인구는 약 69%를 유지하고 2050년까지 점차적으로 60% 이하로 떨어질 것임. 보고서는 "인도가 20년이라는 유리한 인구통계학적 기회를 활용해 1인당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이 보고서는 인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함. "1)부동산 부문이 건설 인력의 80%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만큼, 저렴한 사회주택 개발 장려, 2)IT 허브와 글로벌 역량 센터(GCC)를 2, 3선 도시로 확대, 3) 노동 집약적 제조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인센티브 재할당 등이 이에 해당됨.

자료원: 'India needs 10 million jobs annually to fuel growth: Goldman Sachs', ET(10.30)

② 산업별 주요뉴스

산업 전반

○ 소비 둔화 속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

최근 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식료품·생필품, 스마트폰, 맥주 등에 이르기 까지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Hindustan Unilever의 MD인 Rohit Jawa는 프리미엄 카테고리보다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30% 내외의 더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농촌 지역에서도 감지되고 있다고 밝힘.

Kantar에 따르면, FMCG(일용소비재) 도시 성장률은 4.3%로, 지방은 3.9%에 그쳐 각각 1년 전의 8.1%와 6.3% 보다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Marico의 MD인 Saugata Gupta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중하위 계층의 소비가 위축되었으나, 도시의 상류층과 중상류층 구매자들 사이에서 프리미엄 제품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함. 일례로 United Breweries는 프리미엄 맥주 매출이 27% 급증하여 전체 성장률 5%를 초과하는 성과를 기록함.

이러한 '프리미엄화' 추세는 가전제품에도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2분기 동안 냉장고, 세탁기, TV의 프리미엄 모델이 대중적인 모델보다 2~3배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Premium products are flying off the shelves', ET(10.31)

○ 디왈리 축제기간 중 인도 이커머스 매출 20% 증가.. 1조 루피(119억 달러) 기록

지난 한 달간의 축제 시즌 동안 인도 이커머스 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함 1조 루피(약 119억 달러)를 기록함. 비수도권 소비자의 수요 확대와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거래액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Datum Intelligence에 따르면 올해 축제 시즌 매출 성장률은 23%로, 지난해(8,100억 루피; 약 96.3억 달러)와 2022년(6,980억 루피; 약 83억 달러)에 이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9월 26일부터 시작된 플립카트의 Big Billion Days와 아마존의 Great Indian Festival을 통해, 첫 주 동안 총 5,500억 루피(약 65억 달러) 상당의 제품이 판매됨. 축제시즌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이 기간에 집중됨. 3번째 주에 판매가 둔화되었으나, 다시 반등함.

아마존에 따르면, 고객의 85% 이상이 비수도권 지역 출신임. Datum Intelligence의 Satish Meena는 ET와의 인터뷰에서 "스마트폰, TV 세트, 가전제품, 패션 등 카테고리 전반에서 Tier II-III 도시에서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밝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스마트폰, 식료품, 미용 및 퍼스널 케어 제품, 가정 및 주방 용품이 매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함.

특히, 이번 시즌에는 스마트폰이 가장 큰 카테고리로 부상했으며, 이 기간 동안 온라인 구매가 전체 스마트폰 판매의 거의 65%를 차지했다고 Satish Meena는 덧붙임.

아마존은 3만 루피(약 357달러) 이상의 고가 스마트폰 판매가 전년 대비 최대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힘. 특히,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70% 이상이 Tier 2 및 Tier 3 도시에서 판매되는 등 이들 지역에서 고가 제품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발표함. 아울러, 프리미엄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도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패션/뷰티 카테고리에서는 시계, 향수, K-뷰티, 보석, 핸드백, 스포츠웨어, 여행 가방, 아동복 등 프리미엄 포트폴리오 제품 판매가 평소보다 400% 이상 성장했다고 밝힘.

Satish Meena는 이번 축제 시즌에 쿼터 커머스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며 약 11억 1,2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전함. 일부 소비자 직접 판매 브랜드의 경우 전년 대비 판매가 최대 700% 증가하는 성과를 보임.

자료원: 'Festive Sales End with a Bang, After ₹1 Lakh Cr of Clicks', ET(11.4)

자동차 · 부품

○ 인도, 플렉스연료 차량(FFV) 보급 확대 위해 인센티브 강화 가능성

인도 정부는 브라질과 같이 플렉스 연료 차량(FFV:에탄올과 휘발유를 혼합한 차량) 보급을 전기차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FFV는 전기차 공급망과는 달라서, 중국으로부터 영향이 적기 때문에 보급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소식통에 따르면, FFV 활성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에는 현재 28%인 상품서비스세(GST)를 전기차의 세율인 5%로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옥수수과 사탕수수과 같은 작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에탄올 생산을 증대시키고, FFV 구매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정부 고위관계자는 FFV가 30% 에탄올 혼합 휘발유를 사용하면, 인도가 화석연료 조달에 연간 1,200억 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인도의 에탄올 생산케파는 168.3억 리터로, 2026년까지 20% 혼합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함.

한편, FFV의 모델로 삼은 브라질은 경차 플릿(light duty fleet)의 약 90%가 에탄올 27% 혼합 연료로 운행됨. 인도는 이와 유사한 FFV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자료원: 'Govt may bring flex fuel vehicles on a par with EVs', BL(11.6)

○ 10월 소매 자동차 판매, 전년대비 32% 증가

FADA(자동차 딜러 협회)에 따르면, 2륜차 및 승용차에 대한 축제 수요, 할인제도, 신규 모델 출시 및 정부의 rabi 작물에 대한 최저보상가(MSP) 인상(농촌 소득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10월 소매 자동차 판매가 전년대비 32% 증가한 283만대를 기록함. FADA에 따르면, 이는 작년 11월 285만대를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판매량임.

업체별 매출증가율은 마루티 스즈키 35%, 현대차 30%, 타타모터스 31%, 마힌드라 마힌드라 56% 등임.

FADA 회장 C S Vigneshwar는 "11월과 12월에 약 500만개의 결혼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한편, 최대 483,159대의 승용차가 10월 중 판매되어 재고 수준이 75~80일로 감소함. 9월 재고수준은 80~85일이었음.

자료원: 'Auto retail sales rise 32% in Oct', BS(11.7)

○ **축제기간 판매에 힘입어, 10월 자동차 판매량 증가**

인도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SIAM)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인도 국내 시장의 승용차(PV) 판매량은 전년 대비 0.9% 소폭 증가하여 2023년 10월의 38만 대에 비해 39만 대를 넘어섰음.

2024년 10월에는 두세라와 디왈리가 같은 달에 있어 소비자 수요가 몰림. SUV 판매는 강력한 모멘텀을 보였으며, 전체 유틸리티 차량(UV) 판매량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2백만 대를 넘어섰음.

반면 승용차와 밴 판매량은 각각 17%, 10% 감소한 107,520대, 11,653대를 기록했음.

승용차(PV)는 작년의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0.9% 성장한 39.3만 대를 기록하며 역대 10월 판매량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 이륜차 부문 역시 2023년 10월 대비 14.2%의 견고한 성장률을 기록하며 역대 10월 판매량 중 최고치인 216.4만대를 달성함.

자료원: 'Festival sales drive October auto numbers' BL(11.14)

○ **현대자동차, 인도 농촌시장 성장기회 적극 활용 계획**

현대자동차 인도(HMIL)는 이번 회계연도에 승용차 업계가 완만한 성장 전망에 직면한 가운데서도 향후 몇 달 동안 농촌 지역의 수요 급증에 베풀고 있음. 농촌 지역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HMIL은 이 지역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있음.

최고운영책임자 겸 상근이사인 Tarun Garg는 회사의 FY25 2Q 실적 발표에서 "농촌 수요는 견고했으며, 2년 전 18.5%에서 현재 전체 매출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함. 유리한 문순 조건과 높은 작물 수확량이 이러한 추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HMIL은 농촌 성장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확장 및 관련 이니셔티브를 조정하고 있음.

농촌 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00대가 넘는 모바일 서비스 밴을 출시하여 외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그라민 마호사브와 같은 현지화된 이벤트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현대자동차의 농촌 서비스 커버리지는 최근 몇 년 동안 인도 전역의 75%에서 약 84%까지 확대되었음. 현재 농촌 지역 대리점은 HMIL 네트워크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더 많은 도시와 지역에서 입지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임.

또한 가그는 지난 2개 분기 동안 전체 판매의 36~38%를 꾸준히 차지한 첫차 구매자가 FY20년 31%에

서 크게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구매자 선호도의 변화를 강조함. 이러한 신규 구매자 중 상당수가 베뉴와 크레타 같은 SUV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해치백에서 보다 열망적인(aspirational) 모델로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함. "이러한 변화로 인해 현대자동차의 SUV 포트폴리오가 크게 강화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판매량의 68.6%를 차지하고 9월에는 70%로 정점을 찍었다."라고 그는 덧붙임.

자료원: 'Hyundai bets on buoyant Bharat; plans to capitalise on rural growth opportunities' BL(11.14)

○ 현대, 스코다-VW, 도요타, 4월 발표된 조건부 수입관세인하 조치 수혜 가능여부에 촉각

소식통에 따르면, 폭스바겐그룹, 현대 자동차 및 도요타 자동차 현지 자회사는 로컬 제조업에 장기 투자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일정 수의 고급 전기 자동차를 양허 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도의 전기 자동차 (EV) 정책*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지난 4월에 발표된 조치로 최소 투자요건을 전제로 70~100%에 달하는 전기차 수입관세를 5년간 15%로 인하(연간 8,000대까지). 최소투자요건으로는 최소 5억 달러를 투자해야 하고 승인 후 3년 이내 제조 개시, 3년차 25%/5년차 50% 현지화 비율달성 등의 목표가 제시됨.

이 자동차 업체들의 결정은 향후 3~4개월 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Matching Rev with EV: Hyundai, Skoda-VW, Toyota Await Policy' ET(11.14)

○ 마힌드라 & 마힌드라-스코다, 합작투자 협상 교착상태에 빠져

마힌드라 & 마힌드라(M&M)와 스코다 오토 폭스바겐 인디아(SVWI) 간 잠재적 50:50 합작 투자 협상이 주요 쟁점에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짐.

소식통에 따르면, 두 회사는 최근 몇 달간 사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일련의 MOU를 체결하고, 이달 말에 마지막 남은 몇 개의 MOU에 서명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었음. 하지만 현재 논의가 지연되면서 (합작투자) 가능성이 낮아짐.

참고로, 스코다 오토 폭스바겐 인디아는 폭스바겐 그룹의 인도 내 자회사로, 스코다,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 다수의 브랜드를 포괄하고 있음. 폭스바겐 그룹은 현지 자동차 제조업체 외에 일본과 한국의 경쟁사들에 비해 존재감이 미미한 인도 시장에서 비용과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지분 분산을 모색해 왔음. 조인트 벤처의 범위는 스코다와 폭스바겐 브랜드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독일 대기업이 M&M의 저렴한 개발 비용과 소싱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음.

자료원: 'M&M, Skoda-VW India JV Talks hit Speed Bump', ET(11.19)

○ 인도, 총소유비용이 높아 하이브리드 전기차 성장률이 더딜 전망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하이브리드 전기차로의 전환을 목격하면서 인도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아닐 수도 있음.

분석가들은 FY30년에는 전기자동차(EV) 시장점유율이 FY24 기준 2.4%에서 18%로 늘 것으로 기대함. 압축 천연가스(CNG)를 사용하는 차량은 그 시점에 시장 점유율이 30%로 두 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반면, 하이브리드는 FY24 1.8%에서 크게 성장하지 못한 4.1%에 불과할 전망이다. 분석가인 니시 자란, A K 가우어, 니키스 레디는 Axis Capital 보고서에서 하이브리드의 총소유비용(TCO)이 하이브리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함.

듀얼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인도의 하이브리드는 동급 내연기관 모델보다 20~28% 더 비싸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6~10% 정도만 더 높은 상황임. 하이브리드가 내연기관 및 전기차와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20만 루피 상당의 인센티브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CNG 차량에 비해 매력도는 떨어짐. Axis Capital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에서 하이브리드와 ICE 차량의 TCO 손익분기점은 현재 가격 기준으로 8~9년이며, 이는 하이브리드가 ICE 차량보다 15~20% 더 연료 효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또한 인도에서 전기차는 5%의 상품 및 서비스세(GST)가 부과되지만 하이브리드는 28%가 부과됨. 최근 우타르 프라데시 주 정부가 7월 5일 강력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8~10%의 등록세를 면제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 자동차 업계 내 분열이 표면화되었음.

마루티와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세금 감면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타타 모터스와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M&M)는 이러한 감세에 반대하며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만 인도 도로의 진정한 탈탄소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CNG는 현재 마루티의 브레자와 프롱스, 타타의 펀치를 통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세그먼트에서 호응을 얻고 있음.

분석가들은 "정부가 2030년까지 CNG 네트워크를 거의 세 배로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특히 CNG 네트워크가 부족한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인도 정부는 현재 7,000개 미만인 CNG 네트워크를 FY30까지 17,500개로 늘릴 계획임.

CNG 차량은 동급 ICE 모델보다 9만~10만 루피 더 비싼 반면, 하이브리드는 거의 30만 루피 더 비쌈.

따라서 CNG 채택은 빠르게 증가하여 FY24에는 시장 규모의 거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FY19기준 3%에서 급격히 증가한 17~18%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됨.

분석가들은 2027년 4월부터 시행되는 CAFE III 규범 초안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슈퍼 크레딧 가중치를 높여 전기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CAFE는 기업 평균 연료 효율의 약자로,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체 차량이 회계 연도에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제한합니다. 한 업계 고위 임원은 제안된 CAFE III 규범에 따른 CO2 배출량 목표인 1km당 약 92gm은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배출량(1km당 95-130gm)보다 낮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기차가 필수적이라고 말함.

"일부 주에서는 지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모두 장려할 수 있지만, 중앙 정부에서 HEV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Axis Capital 보고서는 지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현재의 수요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인도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제공할 계획임.

일례로,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은 인도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도입할 계획임. "정확한 일정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고객들의 선호도를 고려해 계획하고 있다"고 김언수 법인장은 10월에 밝힌 바 있음.

마찬가지로 스코다 오토 역시 3년 내로 예상되는 차세대 쿼샤크 등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회사 고위 임원이 언급함. 스코다 오토의 브랜드 디렉터인 페트르 야네바는 카일락 출시와 함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고객 수요가 증가하면 카일락의 하이브리드 변형 모델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Not so hot on hybrid', BS(11.21)

○ 자동차 부품 업계, FY25 매출 801억 달러 돌파 예정

인도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FY25에 801억 달러의 매출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이 산업은 FY20 이후 연평균 8%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Rubix 인더스트리 인사이트 - 자동차 부품 보고서에 따르면, FY24 기준, 전기 자동차(EV) 부품의 기여도는 전체 생산량의 6%로, 기존 대비 2배 증가했음. 인도의 전기차 시장은 FY20에서 FY24까지 연평균 76%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모멘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FY20~FY24 사이에 수출은 연평균 10% 성장하여 213억 달러에 달했으며, 미국이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했음. "FY24 3억 달러 무역 흑자는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에서 인도의 전략적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보고서는 강조함.

한편, 이륜차 부문의 강력한 성장에 힘입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협회는 FY25년 동안 이 산업이 7~1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Auto components industry to cross \$80.1 billion in revenue in FY25', BL(11.22)

○ 자동차 제조업계, 전기건설장비 대상 안전기준 준수기한 3개월 연장(2025.1.1.까지)

인도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당초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기 건설 장비에 대한 엄격한 안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기한을 연장받았음.

지난 목요일(11.21)에 발표된 개정된 기한에 따라 이제 제조업체는 2025년 1월 1일까지 새로운 규범을 준수해야 함. 도로교통부와 고속도로부가 도입한 이 규정은 배터리 시스템, 전기 부품 및 전반적인 차량 구조에 대한 중요한 안전 조치를 포함하는 자동차 산업 표준(AIS)174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제조업체들이 초기 일정 내에 엄격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한 끝에 이 기한이 연장된 것임.

전기 건설 차량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정부는 처음부터 강력한 안전 규범을 확립하고자 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요 기업들이 전기 덤프트럭, 토공 장비 및 기타 건설 차량을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고 있다고 언급함.

자료원: 'Auto Inc gets more time to meet new safety norms', BS(11.24)

○ 마루티 스즈키 인디아, 누적 차량 수출 300만 대 돌파

인도에서 차량 수출을 시작한 지 거의 40년 만에, 마루티 스즈키 인디아가 누적 수출 300만 대를 달성함. 11월 24일, 구자라트 Pipavav 항구에서 출항한 1,053대의 차량을 실으면서, 이 이정표를 달성하게 됨.

마루티 스즈키 인디아의 MD 겸 CEO인 Hisashi Takeuchi는 "2030~31년까지 차량 수출을 다각화하여 75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로, 마루티 스즈키는 인도 내 승용차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자료원: 'Maruti Suzuki crosses milestone of exporting three million cars from India', BL(11.26)

통신 · 스마트폰

○ 트럼프 효과로 아이폰 인도 생산 연간 300억 달러까지 확대 가능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산에 대해 공약대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생산액이 현재의 2배인 30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음. 애플은 현재 연간 약 150~160억 달러 규모의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의 일환으로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60~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약속함.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는 어떤 부분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아이폰 생산으로 인해, 전자 분야처럼 수혜가 크게 기대되는 분야도 있다고 함.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을 실현할 경우, 중국에서 인도로 생산시설이 추가 이전될 것으로 기대됨. 이를 통해 약 2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고, 글로벌 아이폰 생산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2~14%에서 향후 몇 년 내 26%로 늘어날 전망이다.

자료원: 'Trump Effect:iPhone's India Output may Double to \$30b', ET(11.11)

○ FY27까지 아이폰 생산량의 1/3, 인도에서 제조 예상

애플과 그 공급업체들은 모바일 기기에 대한 5년간의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제도의 마지막 해인 FY27까지 아이폰의 글로벌 생산량의 32%, 금액 기준으로는 26%를 인도에서 조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전 세계 iPhone 판매량이 FY24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340억 달러 이상의 생산 가치로 환산 가능함.

FY25 상반기 기준, 애플의 공급업체는 FOB 기준으로 생산가치를 9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음. 공급업체 계획대로라면, 애플은 180억 달러(시장 가치 약 270억 달러)의 생산 가치로 FY25를 마감할 것으로 예상됨.

FY25 말까지 인도는 전 세계 아이폰 생산량의 17~18%, 금액 기준으로는 1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FY24에는 전 세계 iPhone 생산량 중 인도산은 12~14%, 금액으로는 10% 이상을 차지함.

자료원: 'A third of iPhone output to be India-made', BS(11.12)

○ 인도, 10월 스마트폰 수출액 역대 최고치인 20억 달러 돌파

인도셀룰러전자협회(ICEA)에 따르면, 인도의 스마트폰 수출액이 10월에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월별 최고 수출액을 기록함. 이는 글로벌 모바일 공급망에서 인도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함.

FY25 첫 7개월 동안 인도의 스마트폰 수출액은 10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지난해 78억 달러)함. 특히, 10월의 기록적인 실적은 애플이 주도함. Apple은 2024년 5월의 17억 8,000만 달러 대비 23%, 2023년 10월의 12억 달러 대비 70%나 수출액을 늘림.

ICEA는 이 추세대로라면 FY25 전체 스마트폰 수출액이 180억~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인도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의 약 35%가 수출될 것으로 내다봄. FY24 전체 수출액은 150억 달러였으며, 이 중 애플과 그 공급업체가 1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됨.

FY25 첫 7개월 동안 인도의 스마트폰 수출액 중 약 3분의 2는 Apple이 기여했으며, Apple은 월 평균 10억 달러의 아이폰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공급업체 중 폭스콘은 107억 달러의 수출액 중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타타 일렉트로닉스와 페가트론은 각각 20%와 8%를 기여함. 특히 타타 일렉트로닉스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5% 급증함.

한편, 삼성은 전체 스마트폰 수출의 22%를 차지함.

자료원: 'Record \$2 bn: Smartphone exports ring louder in Oct', BS(11.18)

○ 아이폰 16, 인도에서 첫 달 판매 8% 성장...축제 시즌에 프리미엄 제품 선호 뚜렷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예비 추정치에 따르면, 출시 한달 동안 애플의 최신 아이폰 16의 판매 증가율은 같은 기간 아이폰 15보다 8% 높은 것으로 나타남. 9월 13일 사전 예약을 시작해 9월 20일 부터 전국에 출시된 아이폰 16은 특히 고급형 모델인 Pro와 Pro Max가 인도에서 높은 인기를 끌며 시장 성장을 주도함. 당초 16 Pro 시리즈는 수입모델이었으나, 현재는 폭스콘이 인도에서 조립생산 중임.

약 35일간 지속되는 인도의 디왈리 축제 시즌 동안에는 3,500만 대 이상의 스마트폰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됨. 전년 동기 대비 수량 기준으로는 3%, 금액 기준으로는 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아이폰 16 Pro의 1테라바이트 모델은 최대 16만 9천 루피(약 2,007달러), Pro Max는 최대 18만 4천 루피(약 2,185달러)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인도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한편,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아이폰 판매의 약 45%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 비중은 한 자릿수로 집계됨. 나머지 판매는 인도의 광범위한 딜러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짐.

자료원: 'iPhone 16 takes bite out of 15's sales, dials 8% growth', BS(11.6)

○ 인도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 기준 세계 2위, 금액 기준 세계 3위로 부상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2024년 3분기 출하량 기준, 세계 2위, 금액 기준 세계 3위의 시장으로 부상함.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인도는 전 세계 출하량의 15.5%를 차지하여 22%의 점유율로 선두를 차지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함. 미국은 12%의 점유율로 인도의 뒤를 이음.

금액 기준으로는 인도는 작년 같은 분기의 12.1%에서 약 12.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3위를 차지함. 중국은 전체 매출의 31% 점유율로 우위를 유지했고, 미국은 19%로 2위를 차지함.

2024년 3분기 소매 부문 스마트폰의 평균판매가격(ASP)은 8%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294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인도시장의 프리미엄화를 반영함. 인도는 소비자들이 더 비싼 휴대폰으로 전환함에 따라 ASP가 더욱 상승하여 글로벌 ASP인 349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프리미엄 부문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은 금액 기준으로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44.6%의 점유율을 차지함.

자료원: 'Indian smartphone mkt 2nd largest by volume', BS(11.8)

○ 애플, 7개월간(4~10월) 인도 아이폰 생산 100억 달러 돌파

애플이 FY25 첫 7개월(4~10월) 동안 인도 내 아이폰 생산에서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100억 달러를 달성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움. 이는 전년 동기 73억 달러 대비 37% 증가한 수치임.

100억 달러 규모의 FOB 생산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약 1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 중 약 70억 달러(70%)는 해외 시장으로 수출됐으며, 나머지 30억 달러는 국내에서 판매됨. 특히, 지난 10월 한 달간 생산액은 2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애플 역사상 최초로 단일 달에 20억 달러 생산을 기록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

애플은 인도 정부의 생산연계인센티브(PLI)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인도에서 대규모 아이폰 생산을 본격화했음. 이를 지원하기 위해 폭스콘, 페가트론, 위스트론(현 타타 일렉트로닉스) 등 세 곳의 대만 공급업체가 인도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함. 특히, 폭스콘의 첸나이 공장은 전체 생산량의 56%를 차지하며 아이폰의 인도 생산 허브로 자리 잡음.

자료원: 'Apple rings in \$10 bn in iPhone production FOB', BS(11.25)

○ 타타 일렉트로닉스, 페가트론 아이폰 제조 공장 60% 인수계약 체결

타타 일렉트로닉스가 타밀나두에 위치한 페가트론의 아이폰 제조 공장 지분 60%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이 전함. 이번 계약은 타타가 아이폰 조립 역량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되며, 페가트론은 나머지 40%의 지분을 보유하며 아이폰 생산 시설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임.

*페가트론은 인도에서 약 9,5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연간 약 450만 대의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음. 2022년부터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함.

계약 규모는 약 1.5~2억 달러로 추정됨. 위스트론과 페가트론 시설의 생산 능력에 타타가 호수르 공장에서 진행 중인 증설까지 마칠 경우, 타타는 현재 인도에서 가장 많은 아이폰을 생산하는 대만의 폭스콘과 동등하거나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생산 능력이 늘어날 수 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음.

참고로, 애플의 위탁 제조업체는 매달 약 4천만 대의 아이폰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중 3천만~3천5백만 대를 매달 생산하고 있음.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애플이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공급망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인도 내) 생산능력은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음.

자료원: 'Tata Electronics Seals Deal for 60% Stake in Pegatron Tamil Nadu iPhone Plant', ET(11.18)

○ **노키아, 에어텔로부터 4G,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 수주**

핀란드에 본사를 둔 통신 장비 제조업체 노키아는 지난 수요일(11.20) 인도 주요 도시와 주 전역에 4G 및 5G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 바르티 에어텔(Bharti Airtel, 이하 에어텔)과 다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이 계약에 따라 노키아는 자사의 에너지 효율적인 리프샤크 시스템 온 칩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지국, 베이스밴드 유닛, 최신 세대 매시브 MIMO 라디오 등 최첨단 5G 에어스케일 포트폴리오의 장비를 배치할 것이라고 회사는 성명에서 밝힘.

또한 노키아는 5G도 지원할 수 있는 멀티밴드 라디오와 베이스밴드 장비로 에어텔의 기존 4G 네트워크를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Nokia wins multi-billion deal from Airtel to deploy 4G, 5G network", BL(11.21)

○ **인도, 2027년 세계 최대 5G FWA 시장 될 것...미국 제철 전망**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인도는 2027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5G 고정 무선 액세스(FWA:Fixed wireless access) 시장으로 등극할 전망이다. 인도는 약 3,000만 명의 5G FWA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1,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미국은 같은 기간 2,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됨.

통신장비 제조업체 Ericsson은 2030년까지 인도의 5G FWA 가입자가 8천만 명에서 1억 명 사이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인도의 고정 광대역 시장이 연평균 13%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2024년까지 4,9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

Reliance Jio와 Airtel은 2023년부터 FWA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연말까지 각각 5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움. 현재 인도는 전 세계 5G FWA 시장의 약 7분의 1을 점유하고 있으며, 2024년 9월까지 280만 개의 5G FWA 연결을 달성할 것으로 보임.

특히 Reliance Jio는 Tier-I부터 Tier-IV 도시까지 5G FWA 서비스를 빠르게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Airtel 역시 1,300개 이상의 도시에 진출하며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음.

FWA는 이미 대부분의 글로벌 모바일 기업에서 5G 수익화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인도 가입자들의 반응은 통신업체들에게 고무적임. 통신사에 따르면 현재 연결당(가구) 평균 데이터 소비량은 월 500~600GB로, 광케이블을 통한 사용량(월 약 250~300GB)보다 훨씬 높고 모바일 사용자(30GB)보다 16배나 많음. 같은 요금제 조건에서 FWA 사용자의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는 5G 모바일 사용자보다 3~5배 높게 나타나며, 시장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한편, 5G FWA 측면에서 통신사가 직면한 도전 과제는 스타링크나 아마존의 Kuiper와 같은 위성 광대역 서비스임, 이들은 인도에 많은 위성을 보유하여 막대한 용량을 제공하고 5G 속도를 경쟁력 있는 가격 또는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로컬 통신사들은 공평한 경쟁을 위해, (정부 할당 방식이 아니라) 위성 스펙트럼 경매를 원하고 있음.

자료원: 'India may become global leader in 5G FW mkt by 2027', BS(11.25)

조선업

○ 인도 정부, 조선업 강화 위해 3,000억 루피 규모의 해양개발기금 조성

Sarbananda Sonowal 항만해운부 장관은 정부가 조선업 및 수리 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 3,000억 루피(약 35.5억 달러) 규모의 해양 개발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는 향후 5년간 1.5조 루피(약 178억 달러)를 투입하여 진행될 항만 업그레이드 계획(6개의 심해항, 2개의 환적허브 및 친환경/스마트 항만개발을 포함)을 보완할 것임.

Sonowal 장관은 "수소 허브항만 및 다중 연료 벙커링 생태계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며, 인도의 항만 부문이 지속 가능성과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강조함.

정부는 특히 조선업을 핵심 산업으로 설정하고, 이 분야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함. Sonowal 장관은 "3개의 대형 조선 및 수리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있으며, 조선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함. 3,000억 루피 해양개발기금 제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임.

또한, 인도 정부는 인도 내 선박 재활용과 조선 활성화를 위해 크레딧 노트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노후 선박을 국내에서 폐기하고, 대체 선박을 인도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주들은 이 크레딧 노트를 사용(비용에서 상쇄)할 수 있음.

Sonowal 장관은 "인도가 2030년까지 선박 재활용 분야에서 세계 리더가 될 계획"이라며, 인도 선박 재활용 야드의 85%가 환경 및 노동 친화적인 홍콩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함.

자료원: '₹30,000cr Maritime Development Fund to Help Shipbuilding', ET(11.19)

○ 인도, 조선소 확장과 투자 유치로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인도 정부는 일본과 한국 기업들로부터 30억~50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조선소 확장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항만해운부는 외국 은행들과 자금 조달 방안을 논의 중이며, 합작 투자 및 외국인 지분 제공 등 다양한 투자 모델을 검토하고 있음.

정부는 오디샤와 안드라프라데시에 신규 그린필드 조선소를 건설하고, 마하라슈트라와 구자라트에서는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브라운필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하여 조선소 부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큼.

Sarbananda Sonowal 해양수로교통부 장관은 내년에 한국을 방문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임. 현재까지 아시아 지역의 4~5개 기업이 인도에서 조선소를 설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할 의사를 밝힌 상태임.

현재 인도 조선 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0.7%에 불과하며, 중국(47%), 한국(30%), 일본(17%)에 크게 뒤처져 있음.

인도 상공부는 2016년 도입된 Shipbuilding Financial Assistance Policy(조선 금융 지원 정책)의 2단계인 SBFAP 2.0을 통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이 정책은 특수화된 선박에 최대 30%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선박 갱신을 촉진하기 위해 40%의 'ship breaking credit note' 등의 추가 혜택도 검토 중임.

현재 인도의 상선 중 44%가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으로, 선대 현대화는 주요 과제로 남아 있음.

자료원: 'Foreign funds set sail for Indian shipyards', BL(11.20)

○ 조선업 활성화 위해 신규 상선법안(Merchant Shipping Bill 2024) 상정 추진

인도는 선박 및 선박 소유 규범을 확대하고, 선박 등록 및 용선 규범을 완화하여 초기 조선 산업에 추진력을 제공하고 이 부문에서 더 큰 글로벌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상선법을 정비하여 구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으로 대체할 계획이 진행 중임. 새로운 법안은 인도 국적 선박의 등록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것임. 여기에는 비거주 인도인, 인도 해외 시민의 소유권, 추가 기업 구조(예: 유한책임 파트너십), 인도 용선업체의 맨보트 용선-사망 계약으로 용선한 외국 선박의 급행 등록 등이 포함됨.

이전에는 1958년 상선법에 따라 인도에 국적을 둔 선박은 인도 시민이 100% 소유하거나 중앙 또는 주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단체의 주된 사업장이 인도여야 하며, 모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했음.

전 세계 선박 건조 및 소유 부문에서 인도의 점유율은 1% 미만임. 인도는 총톤수 1,300만 GT 규모의 1,526 척을 보유하고 있음. 이 중 3분의 1은 해외 무역에 사용됨. 재무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 국적 선박 소유 자격 기준 확대(이전에는 3개 카테고리만 제한)에 따라 이제 중앙정부가 고시한 모든 법인이 선박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인도 항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도 국적 선박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함.

"법안 초안을 작성할 때 영국, 싱가포르, 호주에서 채택한 모범 사례를 고려했는데, 이들 국가는 인도와 마찬가지로 관습법 법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미국, 유럽연합의 법률도 분석했다."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임. 상선법안 2024(Merchant Shipping Bill 2024)에 대한 내각의 승인을 받았으며 관계자들은 다가오는 겨울 국회 회기 중에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자료원: 'New merchant shipping law to boost shipbuilding, expand global presence', BL(11.21)

○ JSW그룹, 자동차에 이어 하이얼과의 협력 통해 가전시장 진출 추진

JSW그룹이 자동차 분야 진출에 이어 가전 분야로도 진출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JSW는 중국 기업 MG 모터스와의 합작을 통해 인도 자동차 시장에 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하이얼그룹과 협력하여 전자시장으로의 진출을 논의 중임.

하이얼은 프레스노트(Press Note) 3 지침*에 따라 인도 내 신규 투자에 대한 정부의 장기 승인 지연으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JSW와의 합작 투자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충족할 것으로 보임. 소식통에 따르면, 하이얼은 JSW와의 합작을 통해 제조 시설 설립에 100억 루피(약 1.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JSW에 과반수 지분을 매각할 의향도 있다고 전해짐. 참고로, 하이얼은 인도 가전 시장에서 LG와 삼성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2020년 인도-중국 간 국경분쟁 이후, 인도와 국경을 접한 국가(중국이 타겟)의 FDI는 Press Note 3에 의거해, 추가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JSW는 올해 초 중국의 SAIC 모터로부터 MG 모터 인디아의 지분 51%를 500억 루피(약 6억 달러)에 인수하며 자동차 시장에 본격 진출함. MG는 이 자금을 통해 연간 생산량을 기존 100만 대에서 300만 대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

인도는 하이얼 그룹의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하이얼은 연간 9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투자 제한 조치로 인해 삼성, Panasonic, Whirlpool, Bosch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와 Voltas, Bajaj Electricals, Godrej Appliances, Havells India 등 인도 로컬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료원: 'After auto, JSW Group eyes JV with Haier for white goods', BL(11.5)

○ 인도 정부, 노트북 등 전자기기 수입 5% 감축 검토 중

인도 정부가 노트북을 비롯한 전자기기 수입*을 현재 수준보다 5%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번 조치는 수입 상한선이 도입되더라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함.

*동 기사에 정확한 제품 범위가 기재되진 않았으나, 맥락상 수입관리시스템 적용대상인 노트북 등 7개 IT 하드웨어 제품인 것으로 해석됨.

이번 정책은 2023년 8월,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일부 IT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맥락을 같이함. 당시 정부의 발표는 업계와 주요 무역 파트너들, 특히 미국으로부터 반발을 샀으며, 이에 따라 기존 계획을 수정한 새로운 수입 관리 시스템이 2023년 11월부터 시행되었음.

이 수입 관리 시스템은 노트북, 태블릿, 일체형 개인용 컴퓨터, 초소형 폼팩터 컴퓨터, 서버 등 7개 IT 하드웨어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임. 시행 만료를 앞두고, 정부는 수입을 줄이면서 인도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다시 계획 중임.

정부는 이러한 제한으로 다른 국가와 무역 제한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인도에서 제조업을 촉진하고 싶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다른 소식통이 전함.

한편, 수입 감축 규모에 대한 질문에 관계자는 수입을 얼마나 줄일지, 얼마나 줄일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소식통은 2025년 말까지 수입을 5% 줄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공식화'하지 않고도 시행될 수 있다고 전함.

참고로, FY24기간 동안 7개 IT 하드웨어 제품의 수입액은 87억 달러로, 중국의 점유율은 약 60%에 달함.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중국산 수입 비중이 약 80%에 달했음.

자료원: 'Laptop import cut in the works; govt wants no supply disruption', BS(11.18)

○ 인도 전자제품 수출, 사상 최고치 기록하며 급성장

2024년 10월 말, 인도의 전자제품 수출액은 19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눈에 띄는 성장을 보임. 이는 지난 회계연도 같은 기간의 154억 달러와 비교해 24% 증가한 수치임. 전자제품 수출의 급증은 스마트폰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제도 덕분에 가능했으며, 특히 스마트폰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2024년 10월 한 달 동안의 전자제품 수출액은 34억 달러로, 지난해 10월의 24억 달러에서 45% 증가함. 10월까지 전자제품 수출의 약 55%가 스마트폰에서 차지하며, 이 중 아이폰의 수출은 10월까지 인도 스마트폰 수출의 66%, 전자제품 전체 수출의 37%를 차지함.

전자제품은 지난해 10월만 해도 엔지니어링 제품, 석유 제품, 보석 및 보석류, 의약품, 화학제품에 이어 6번째로 큰 수출 품목에 불과했으나, 2024년 10월에는 3위로 급상승하며 엔지니어링 제품과 석유 제품에 이어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잡음.

인도 상무부에 따르면, 전자제품은 현재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출 품목으로, 월별뿐만 아니라 누적 수출액 기준으로도 인도의 5대 수출 품목 중 하나로 자리잡음. 전자제품은 석유와의 격차를 좁히며, 2024-25년 같은 기간 동안 전자제품 수출액이 40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석유 수출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임.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전자제품 수출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470억 달러에 달한 석유 수출의 3분의 1에 불과했던 전자제품 수출액은 2024-25년 회계연도에 석유 수출액의 거의 절반인 40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임.

자료원: 'Smartphone PLI rings in record electronics exports', Business Standard(11.20)

○ LG전자와 부품공급업체, AP 주에 3번째 공장 설립 추진... 총 700억 루피 투자 계획

한국의 전자 제품 제조업체 인 LG 전자와 부품 공급 업체는 안드라 프라데시 스리시에 회사의 세 번째 공장을 건설하고, 공급 업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총 700억 루피를 투자 할 계획이라고, 동 사안에 정통한 업계 임원이 밝힘.

이 임원들은 LG전자가 500억 루피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한국과 중국의 부품 공급업체가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임. 매출 기준 인도 최대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LG전자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안드라프라데시 주 정부에 300에이커의 부지를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1,500명 이상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함.

LG는 인도시장과 수출을 위해 새 공장에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이는 인도에서 가전제품 제조에 대한 최대 규모의 투자 중 하나가 될 것임. 또한 LG의 부품 공급업체가 인도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1997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LG는 현재 우타르프라데시주 그레이터 노이다와 푸네 인근 란장가온에 각각 공장을 두고 있음. 인도에서 기업공개(IPO)를 검토 중인 LG는 IPO 자금을 신공장 건설에 사용할 것으로 보임. 기업공개는 2025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최대 15억 달러까지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인도 시장의 유망한 성장 잠재력을 감안하여 현재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서울에 있는 LG전자 대변인은 ET의 질의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밝힘.

위에서 인용한 임원 중 한 명은 회사가 이미 안드라프라데시 주 정부에 투자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주 정부는 스리시티 공장 건설에 필요한 토지의 일부를 할당했다고 밝힘. 주 정부는 나머지 토지를 할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스리시는 다이킨, 하벨스, 블루스타 등의 기업이 공장을 두고 있는 전자 제조 허브로 부상하고 있음. 또한 한국 기업인 삼성과 현대자동차 인도법인도 공장을 두고 있는 첸나이와도 가까움. “현지 부품 생산 기지를 확보하면 LG 인도법인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인도 정부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통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수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한 임원은 밝힘.

LG에게 인도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임 최근 기업등록기관(RoC) 신고에 따르면, LG 인도법인은 FY24 회계연도에 순이익이 12% 증가한 151.1억 루피를 기록했음. 매출은 7% 증가한 2,155.7억 루피를 기록함. RoC 서류에 따르면 LG 인도 수출액은 FY24에 9% 증가한 108.6억 루피 상당의 제품을 수출함. 반면, 865.4억 루피 상당의 부품을 수입함.

한편, LG 인도는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와 같은 카테고리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에어컨에서는 2위, TV 브랜드 중에서는 상위 2개 브랜드에 속함.

자료원: ‘LG, Vendors Ready ₹7k-cr India Infusion’, ET(11.21)

○ 인도 IT 하드웨어 업계, 제조 비용 중국 대비 3~4% 비싸.. 규모 확대에 애로로 작용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IT 하드웨어 제조기반을 인도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비용과 생태계 부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음. 업계 경영진에 따르면, 인도에서 하드웨어를 조립할 경우 중국보다 약 3~4%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함.

Acer India의 Sudhir Goel은 "중국과는 달리, 인도에는 통합된 생태계가 없기 때문에 무관세로 수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중국은 이미 세계적인 생산 허브로 자리잡고 있어, 인도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생산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함. 그러나 고엘은 "인도가 확실히 확장할 수 있는 시점에 왔다"고 강조하며, 지난 4~5년 동안 정책적 안정성이 지속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고엘은 "초기 단계에서 인도에서 부품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물류 비용이 이중으로 든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현지 생산이 중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용을 초래한다고 설명함. 그는 "현재로서는 PLI(생산 연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비용을 상쇄할 수 있지만, 여전히 3~4%의 비용 차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음.

대부분의 IT 하드웨어 기업들은 PLI 적격 파트너와 협력하여 인도에서 현지 생산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주요 부품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생산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전체적인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영진들은 전함. 특히 인쇄 회로 기판(PCB), 디스플레이, 스토리지, 메모리 등 주요 부품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어 공급망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 다른 글로벌 IT 하드웨어 회사의 고위 임원은 "데스크톱의 경우 인도에서 현지 부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노트북과 같은 고급 제품은 부품의 수명이 짧고 복잡성이 높아 현지 조달이 더 까다롭다"고 언급함.

자료원: 'IT Hardware Firms Find Scaling Up in India Tough', ET(11.26)

○ 애플·구글·메타 등 테크기업, 인도 시장에서 급성장세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인도 시장에서 글로벌 성장률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둬.

애플의 글로벌 순이익 성장률은 FY21 64%에서 FY24 3.3%로 크게 둔화된 반면, 애플 인디아의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함. 구체적으로, FY21 32%, FY22 3%, FY23 76%, FY24 23%의 이익 증가율을 보임.

구글 인디아도 유사한 추세를 보임. 모기업 알파벳의 순이익 증가율은 FY22 89%에서 FY24 23%로 감소했지만, 구글 인디아의 순이익 증가율은 FY21 14%에서 FY24 25%로 상승함.

Greyhound Research의 Sanchit Vir Gogia는 "인도 시장은 현재 매우 활발하며, 정부의 정책이 억눌린 수요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소비자 심리도 긍정적이며, 향후 10년 동안 다양한 산업에서 엄청난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강력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한편, Gartner의 Naresh S는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들은 성장을 위해 인도와 같은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투자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인도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투자를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함.

자료원: 'Apple, Google and Meta growing faster in India than globally', BL(11.26)

○ **ClickPost 보고서, 연말연시 온라인 매출 49% 증가...Tier 2, 3 도시 기여 두드러져**

물류 인텔리전스 플랫폼 ClickPost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축제기간 동안 온라인 매출이 49% 증가하며,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한 것(2023년에는 39%)으로 나타남. 이 성장은 주로 Tier-2, Tier-3 도시에서의 매출 상승에 기인하며, 이들 도시는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됨.

ClickPost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9월, 10월, 11월 동안의 6개 주요 카테고리에서 총 6,100만 건의 배송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성장 추세를 밝혀냄.

자료원: '49% rise in online festival sales led by Tier-II, -III cities', Business Standard(11.6)

○ **인도집행국(ED), 아마존·플립카트 FDI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 본격화**

인도집행국(ED)이 아마존과 플립카트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함. 조사 초기에는 두 플랫폼의 판매자에 초점을 맞춘 조사가 진행되었음.

지금은 이커머스 기업이 벤더에 대한 과도한 통제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규정상 이커머스 기업은 플랫폼 역할만 수행할 수 있음.

ED는 일반적으로 금전적 처벌을 수반하는 민사 범죄인 외환관리법(FEMA)에 따른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음. 이달 초에는 뉴델리,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를 포함한 19개 지역에서 아마존과 플립카트의 주요 셀러와 관련된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했음.

조사에 따르면, 수색 대상이 된 셀러들은 소환되어 거래 내역과 계약 세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았음. 특히, 아마존과 플립카트가 실제로는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인 벤더로 위장한 셀러들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FDI 규정을 우회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한편, 인도의 FDI 규정은 외국인 투자를 받은 이커머스 기업이 재고 기반 모델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인도 정부는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여 판매자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판매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또한 한 판매자가 단일 플랫폼 매출의 25% 이상을 차지할 수 없도록 규정함. 규제가 강화된 이후 두 회사는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주요 셀러의 지분을 매각한 바 있음.

자료원: 'ED Shifts Focus to Amazon & Flipkart Ties with Sellers', ET(11.18)

○ **생필품 구매, 패션 이커머스 채널로 Q-comm 선호**

인도 소비자들은 생필품 구매 시 쿼 커머스 플랫폼을 점점 더 선호하고 있지만, 고가품 구매 시에는 여전히 매장 쇼핑을 선호하고 있음.

이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디지털 도입,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인해 선호도와 비즈니스 모델이 재편되면서 인도의 소비자 산업이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임. 쿼 커머스 모델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 부문은 높은 운영 비용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음.

그랜트 손튼 바랏이 발표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식품 및 식료품 구매 시 쿼커머스를 선택하면서 쿼커머스가 주로 생활 필수품에 대한 선호 모드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동시에 이커머스는 의류와 액세서리를 구매할 때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며 대량 판매의 거의 75%를 차지했음. 그러나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때는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응답자의 50% 이상이 이러한 제품을 구매할 때 계속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한다고 답함. 이는 오프라인 소매업체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경험과 품질 보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그랜트 손튼 바랏의 소비자 산업 리더인 나빈 말파니는 "소비자들이 디지털 플랫폼의 편리함과 기존 매장이 제공하는 품질 보증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인도의 소매 생태계는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함. 아울러 그는 "이러한 추세는 브랜드가 생필품의 디지털 접근 속도와 프리미엄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매장 경험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전통적인 매장은 제한된 제품 범위와 높은 가격은 부담스럽다고 지적했음. 이에 대응하여 소매업체들은 오프라인 매장의 신뢰성과 디지털 플랫폼의 편리함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점점 더 많이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쿼커머스 모델의 도전 과제에 대해 창고 보관 및 신속한 배송과 관련된 높은 운영 비용이 비즈니스 모델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배송 비용이 주문 총 마진의 최대 70%를 차지하며 평균 300~500루피에 달한다고 지적함.

이에 대해,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면 재고 관리를 개선하고 배송 경로를 최적화하여 비용과 속도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지역 소매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밀착형 유통을 확대하여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중앙 창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자료원: 'Q-comm preferred channel to buy essentials, e-commerce for fashion', BL(11.22)

○ L'Oréal CEO, 인도의 젊은 세대, 밝은 피부보다 잡티 없는 피부 선호

L'Oréal의 글로벌 CEO Nicolas Hieronimus는 인도의 스킨케어 시장이 세대 간 변화를 겪고 있다고 밝힘. 그는 인도의 젊은 세대가 "밝은 피부"보다 "잡티 없는 피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함. 미백 제품은 여전히 인도 스킨케어 매출의 약 25%를 차지하며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음. Hieronimus는 "우리가 '브라이트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규칙한 잡티를 제거하는 과정의 일부"라며, 인도에서 여전히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문화가 존재한다고 설명함.

자료원: 'India's Gen Z Not Fascinated with Fair Skin', ET(11.25)

철강

○ 10월 인도 철강 수출량 11% 증가한 44만톤 기록

철강부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수출량은 전월대비 11% 증가한 44만톤을 기록함. 이는 9월 수출량 40만톤보다 증가한 수치임. 10월 수입량은 BIS 인증의무화품목 확대 및 NOC 발급 제한 등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4% 감소한 98만톤을 기록함. 하지만 전월 대비로 비교하면, 10월 수입량은 34%, 수출은 51% 증가했음.

참고로 인도 철강업체들은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In a first this fiscal, steel exports rise 11% in Oct; imports ease', BL(11.11)

에너지 • 인프라

○ 인도 정부, MDB로부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11억 달러 동원 계획

인도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C)와 같은 MDB 및 민간 개발업체로부터 11억 달러를 동원(mobilise)하여 인도 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아울러, 다양한 기후투자기금(CIF)으로부터 7천만 달러도 지원받을 예정임.

신재생에너지부(MNRE)가 최근 발표한 '재생에너지 통합 투자 계획(REI-IP)'에서 상기 자금을 지원할 3개의 중점 분야를 제시함

1) 에너지저장시스템 구축, 2) 그리드 인프라 강화, 3) 재생 에너지 기술의 혁신과 견고한 전력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지원이 이에 해당함.

아울러, MNRE는 REI-IP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언급함. 첫 번째는 4.25억 달러 규모의 전력 시스템 강화 프로젝트로, 이 중 2억 달러는 ADB의 양허성 차관으로 총당될 예정임. 두 번째 프로젝트는 4.25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력망을 강화하고, 10GW의 해상풍력 발전시 송전에 필요한 항만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세계은행이 2억 달러의 양허성 차관을 지원할 예정임. 세 번째 프로젝트는 상업 및 산업(C&I) 고객에게 24시간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와 통합된 200MW의 재생에너지를 배치(deployment)하는 2.2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IFC가 1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임.

MNRE 문서에 따르면, "인도의 REI-IP 투자 계획에 필요한 총 재원은 11억 3,500만 달러로 추정되며, CIF의 양허 금융은 다자개발은행(MDB), 개발 파트너, 국가 및 지방 정부, 국영 기업의 기여를 통해 전체 투자액을 10배 이상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

자료원: 'Centre hopes to mobilise \$1.2b to support renewable energy goal', Business Line(11.4)

○ 인도 정부, Gati Shakti 데이터를 민간 부문과 제한적으로 공유 검토

정부 고위급 패널이 Gati Shakti 국가 마스터플랜의 데이터를 민간 부문과 제한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T V Somanathan 내각 장관이 이끄는 국무회의(EGOS)는 오는 11월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 예정임. 소식통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이 이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민간기업에게 제한적이거나 데이터가 공유된다면,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이들 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재는 주 및 중앙 정부 부처만이 Gati Shakti의 디지털 포털에 접근할 수 있음.

자료원: 'Decision on limited Gati Shakti access for pvt sector soon', Business Standard(11.4)

○ **Reliance Industries, AP 주에 500개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립 위해 6,500억 루피 투자계획**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RIL)가 안드라프라데시에 6,500억 루피를 투자하여 향후 5년 동안 500개의 압축 바이오가스 플랜트(CBG)를 설립할 예정임. 이는 RIL이 구자라트 외 지역에서 수행하는 가장 큰 규모의 투자가 될 것임.

동 사안에 정통한 사람들은 플랜트당 13억 루피가 투자되는 이 프로젝트는 AP 주 내 황무지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함. 주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이 공장은 25만 명의 직접 및 간접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안드라 주 정부는 최근 고시된 통합 청정 에너지 정책에 따라 바이오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했음. 5년 동안 CBG 플랜트 고정 자본 투자에 대한 20%의 자본 보조금과 SGST 및 전기세를 5년간 전액 환급하는 것이 포함됨.

자료원: 'RIL to Pump ₹65kcr Into AP for 500 Biogas Plants' ET(11.12)

○ **2024년 10월 기준, 인도 총 재생에너지 설치용량 203.18GW 기록**

신재생에너지부 발표에 따르면, 인도 총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은 2024년 10월 기준 203.18GW로 증가함. 이는 2023년 10월 178.98GW보다 24.2GW 증가한 수치임. 이중 태양광은 92.12GW로 전년 대비 20.1GW 증가하며 가장 괄목한만한 성장을 일궈냄. 풍력 설치용량은 47.72GW로 전년 대비 3.43GW 증가함.

참고로, 인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500GW 케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자료원: 'Green Power Capacity Rises 13.5% to 203 GW in Oct', ET(11.13)

기타

○ **인도 온라인 게임시장, 28% GST 신규 부과에도 불구하고 FY24에 23% 성장**

게임 전문 벤처캐피털 Lumikai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게임 시장은 온라인 게임에 새로 부과된 28% GST에도 불구하고 FY24에 전년 대비 23% 성장한 3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함.

*State of India Interactive Media and Gaming Research

인앱 구매와 광고 수익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게임 시장은 5년 연평균 성장률(CAGR) 20%로 성장하여 FY29까지 92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동 보고서는 예상함.

현재 리얼 머니 게임(RMG)이 전체 매출에 24억 달러를 기여하며 업계에서 가장 큰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인앱 구매 매출은 FY24에 전년 대비 41%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부문이었음. 보고서는 FY29까지 인앱 구매가 44%의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하여 RMG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India's online gaming market grew 23% in FY24 despite GST burden', BS(11.12)

○ 인도, 2022년 기준 세계 당뇨병 환자 수 1위 기록

란셋(Lancet)에 게재된 글로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도는 2022년에 2억 1,200만 명의 당뇨병 환자가 발생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았음. 중국이 1억 4,800만 명의 당뇨병 환자로 그 뒤를 이었음.

2022년 당뇨병 성인 8억 2,800만 명 중 4분의 1 이상(2억 1,200만 명)이 인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 1억 4,800만 명, 미국(4,200만 명), 파키스탄(3,600만 명), 인도네시아(2,500만 명), 브라질(2,200만 명)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도 여성의 당뇨병 비율은 1990년 11.9%에서 2022년 23.7%로 증가하여 다른 국가들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남성의 당뇨병 비율은 1990년 11.3%에서 2022년 21.4%로 증가했음.

자료원: 'India Tops Global Diabetes List with 212 M Cases in 2022: Lancet Study', ET(11.14)

○ 카르나타카주, 인도 최초 글로벌 역량 센터(GCC) 전용 정책 발표

카르나타카주가 혁신과 기술 우수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 최초로 글로벌 역량 센터(GCC)를 위한 전용 정책을 공개함. 이 정책은 2029년까지 500개의 새로운 GCC 설립, 35만 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 경제 생산액을 50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현재 카르나타카에는 875개 이상의 GCC가 운영 중이며, 시장 규모는 222억 달러에 달함. 특히,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카르나타카에 위치한 GCC 중 47%가 프로세스 개선 및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Siddaramaiah 주 총리는 벵갈루루 테크 서밋에서 정책을 발표하며, 벵갈루루, Mysuru, Belagavi에 GCC 전용 글로벌 혁신 지구(Global Innovation Districts)를 설립할 계획도 공개함. 이 혁신 지구는 GCC 기업의 입주를 지원하며, 첨단 기술 및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예정임.

이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Beyond Bengaluru" 이니셔티브로, Mysuru, Mangaluru, Shivamogga, Hubballi-Dharwad와 같은 2-3등급 도시들의 균형 잡힌 개발을 목표로 함. 해당 지역에 GCC를 설립하는 기업들에게는 맞춤형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지역 인재를 활용한 성장도 함께 도모됨.

IT-BT 장관 Priyank Kharge는 정책 실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설립하고, GCC 관련 전문가 그룹이 정책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힘. 이 그룹은 IT, 금융, 생명공학, 제조 등 다양한 산업의 리더들로 구성되며, 정책의 포괄성과 산업별 특성을 보장할 예정임

정책의 주요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민관 협력으로 개발될 'GCC Immersive Hubs'임. 이 허브는 카르나타카의 R&D 역량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외국인 투자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자료원: 'In a First, K'taka Unveils GCC Policy, Eyes 3.5 lakh Jobs', ET(11.20)

③ 외국인투자유치

○ 2024.4~9월 인도 FDI, 전년동기 대비 26 % 증가한 421억 달러 기록

2024년 4~9월 인도의 총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년 전 335억 달러에서 42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했지만, 송금과 해외 FDI 증가로 인해 유입에서 유출을 뺀 순 FDI는 지난해 같은 기간 39억 달러에서 36억 달러로 다소 줄었다고 인도 중앙은행은 밝힘.

자료원: 'Gross FDI grows 26% to \$ 42.1 bn, net moderates', BS(11.21)

④ 수입규제

○ 인도 철강업계, 값싼 수입 철강 급증에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요청

인도 철강업체들이 중국,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 급증하는 값싼 철강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임시 세금(tax) 부과를 요청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음.

인도철강협회(ISA)는 11월 13일 이뤄진 발표를 통해 이러한 수입 증가가 국내 철강업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경고함. JSW스틸, 타타스틸, 인도철강공사(SAIL) 등을 회원사로 둔 ISA는 최근 무역구 제국(DGTR)에 제출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주요 수출국들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함.

한때 인도의 주요 철강 수입국이었던 베트남도 이제는 인도로 철강을 수출하고 있으며, 인도는 F24 기준으로 합금 순수입국이 된 상황임. 정부는 지난 8월 베트남산 특정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지만,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임.

Reuter가 검토한 잠정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인도의 철강 완제품 수입량은 570만 톤으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ISA는 보고서에서 "2024/25년 철강업계의 마진이 68%에서 91%까지 감소했다"며, "투자자들의 자금 조달 불확실성으로 인해 생산 능력 확장이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함.

인도의 최대 철강업체 JSW스틸은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철강 가격이 하락하면서 3분기 연속 수익 감소를 기록했다고 밝힘.

DGTR은 ISA에 철강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업체들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공식 청원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함. 향후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여부는 DGTR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자료원: 'Steelmakers push for tax on cheap imports', Business Line(11.20)

○ 인도 정부, 중국산 철강 수입에 임시 세금 부과 요청 검토

인도 정부가 중국산 철강 수입에 대한 임시 세금 부과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사잔 진달 JSW 그룹 회장이 지난 수요일(11.20)에 밝히면서, 내년 1월 말까지 시멘트 사업의 기업 공개에 대한 규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진달 회장은 “우리는 철강부에 매우 인내심을 갖고 있다”며 “중국산 철강의 국내 덤핑에 대한 보호를 위해 업계가 정부에 요청한 사항을 언급했다”고 말했음. 벵갈루루에서 열린 업계 행사에서 진달은 “우리는 자유무역협정 국가를 통해 인도에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입을 막기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인도 정부가 임시 세금을 대한 요청을 검토하는 절차는 사용자 업계와 협의 중인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들은 바가 없다.” 고 덧붙임. 아울러, 중국산 철강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 철강 마진이 줄어들어, 투자 및 설비 증설을 위한 잉여가 많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진달은 강조함.

자료원: ‘Govt studying temporary tax request on China steel imports’, BS(11.21)

○ 인도 정부, 아세안 FTA를 통한 중국산 우회 수출 차단에 나서

인도는 현재 진행 중인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에 있어, 원산지 규정(ROO)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제3국,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 블록(아세안국가)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Asean FTA: India to focus on maximising exports, blocking China’, BL(11.21)

○ 인도 주재 일본대사관, 수입 철강대상 NoC 발급 중단 관련 인도 정부에 이의제기

인도 주재 일본 대사관은 철강부와 상공부 등 두 중앙 부처에 일본 철강 화물이 세관 당국에 의해 인도 항구에서 이의 제기 증명서(NOC: Non Objection Certificate)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짐.

“일반적으로 NOC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열리는 품질관리(QC) 위원회 회의를 거쳐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2024년 9월부터 이러한 회의가 중단되어 NOC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라고 일본 대사관의 타카시 아리요시는 10월 24일자 서한에서 밝힘.

아리요시는 일본 기업들이 선박이 항구에 발이 묶여 상업 활동에 차질을 빚으면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함. 그는 외교부에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진전이 없었으며, 조치가 없으면 일본에서 인도로의 철강 수입은 계속 중단될 것이라고 덧붙임.

인도 수입업자들은 마찬가지로 수많은 철강 컨테이너가 거의 두 달 동안 항구에 갇혀 있다고 말하면서 우려를 표명함. 이러한 상황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급증하는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있는 인도 대형 철강 회사의 로비 강화와 일치함. 그러나 수요자인 중소기업(MSME)은 국내 철강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들어 철강 수입 제한에 반대하고 있음.

자료원: ‘Japan flags issue of steel consignments blocked at Indian ports; domestic industry also impacted by restrictions’, Indian Express (11.27)

○ **인도, 베트남·태국산 용접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에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인도 정부는 지난 화요일(11.5), 베트남과 태국에서 수입되는 용접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 및 튜브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이번 조치는 향후 5년간 유효하며, 생산자와 원산지에 따라 미터톤당 246달러에서 307달러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임.

자료원: 'Anti-Dumping Duty Imposed on Welded Stainless Steel Pipes, Tubes', ET(11.6)

○ **인도표준국(BIS), 중국·베트남 소재 50여 개 부품 공급업체 공장 재인증 거부...2025년 에어컨·냉장고 공급 부족 우려**

인도표준국(BIS)이 중국과 베트남에 위치한 50개 이상의 부품 공급업체에 대해 공장 재인증을 거부하면서, 2025년 여름 에어컨과 냉장고의 대규모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번 결정은 중국산 부품 공급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통해 우회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임.

BIS 인증은 인도 정부 규정에 따라 수입전 반드시 획득해야하는 의무 사항임.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수입 대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또한, 이번 결정이 현지 제조를 촉진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현재 제조업체들은 금속판, 구리관, 컴프레서, 첨단 전자부품 및 모터 등 주요 부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참고로, 중국 공급업체들은 2018-2019년 및 2019-2020년 한정적으로 BIS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해당 인증은 2024년 중반에 만료되기 시작함. 전자업체 CEO들은 정부가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품에 한해서만 BIS 승인을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들었다고 밝힘.

자료원: 'Summer of Discontent Likely Next Year on BIS No to Chinese 'Cool' Parts Suppliers', ET(11.20)

○ **인도정부, 수입산 섬유 대상 최저수입가격 부과 여부 검토**

인도 정부는 지난 몇 달 동안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힌 특정 섬유 제품에 대해 최저수입 가격(MIP)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임.

섬유부는 비스코스 레이온 원사, 폴리에스테르 직물, 면 반바지 등 최소 6개 제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산인 것으로 알려짐.

MIP는 저가 수입품의 약탈적 가격 책정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가격을 개선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규정된 금액 이하로 가격이 책정된 경우 수입을 금지함. 아마,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및 코팅 직물, 인조 섬유(MMF) 파일 직물도 조사 대상 제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

올해 4~8월 아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8.7% 증가했으며 비스코스 레이온 원사 수입은 10% 증가함. 폴리우레탄(PU)으로 코팅된 직물의 인바운드 선적은 이 기간 동안 28.8% 증가했음.

중국인 인도의 플라스틱 및 PU 코팅 직물의 최대 공급원으로, 각각 68%와 5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벨기에와 프랑스는 인도의 주요 아마 공급 업체임. 방글라데시는 면 반바지와 바지 턱받이 및 브레이스 작업복의 인도 수출 1위 국가로 점유율이 81%에 달함.

한편, 지난달 인도 정부는 값싼 직물의 인바운드 선적을 막기 위해 합성 니트 직물에 대한 최소수입가격(MIP)을 올해 12월 31일까지 kg당 3.5달러로 연장함. 또한 인쇄, 표백, 표백되지 않은 직물 및 뜨개질 직물을 포함한 8가지 새로운 종류의 니트 직물에 대해 MIP를 연장한 바 있음.

자료원: 'MIP may be Woven into Textiles as Imports Rise', ET(11.18)

⑤ 세제 및 규제 변화

○ 건강기능식품, 이제부터 의약품 당국이 규제 전망

정부 전문가 패널은 건강기능식품(보조제)의 과장된 광고(claim)에 대해,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 대신 의약품 규제 당국이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함.

해당 패널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간의 중복 규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특히 질병위험감소표시(DRR)와 같은 질병 치료 및 완화 효과를 주장하는 제품은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CDSCO)의 관할 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패널의 보고서는 보건부, 의약품 규제 당국, FSSAI에 전달되었으며,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DRR 주장 또는 관련 제품은 FSSAI에서 승인될 수 없다(shall not be approved)"고 밝힘.

자료원: 'CDSCO may Regulate Health Supplements to Stem Unapproved Claims by Firms', ET(11.5)

○ 인도, PLI 제도 확장 위해 공공 조달 규칙 조정 검토

인도 정부는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에 따른 제조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조달 규칙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논의 중인 주요 안 중 하나는 PLI 인센티브를 받는 계약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는 기업도 현지공급업체('deemed local supplier')로 간주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지난 7월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PLI 지원을 받는 제조업체는 최소 20%의 현지 콘텐츠를 충족할 경우 Class-II 공급업체로 인정받음. Class-I 공급업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0%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현재 관계 당국은 지적재산권(IP) 및 브랜드 소유자와 계약 제조업체도 로컬공급업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 중임. 또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조달에서 PLI 수혜기업의 시장접근성을 확대하는 이슈는 특정 부문(공급업체를 정의할 수 있는 Class I, Class II 기준을 자유화 가능)에서 검토되고 있음.

아울러 동 관계자는, 인도 정부가 인도에서 처음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대상으로 지원책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임.

자료원: 'Public Procurement Norms may be Tweaked to Aid Makers Under PLI', ET(11.19)

○ **대법원, 기존 판결 뒤집고 DRI가 SCN 발행이 가능하다고 최종 판정**

지난 목요일(11.7), 대법원은 DRI(Directorate of Revenue Intelligence) 담당관이 Show Cause Notice(SCN, 과세청구통지서)를 발행하여 세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림. 2021년 Canon India 케이스에 대한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현재 계류 중인 약 2,200억 루피 규모(세금 및 벌과금 포함)의 SCN에 대한 효력이 복원됨.

관세 추징 관련 DRI 노티스(SCN)를 받았던 기업은 약 95개로, 벵단타, 보다폰 아이디어, 아다니 엔터프라이즈, TVS 모터스, 고드레즈 앤 보이스 매뉴팩처링, BSNL, 다이킨, 소니 인도, 캐논, 니콘 인도, 젠하이저, 야쿠르트 다논 등임. 이번 판결은 수출입 업무가 많은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21년 판결*에 대해 세관 부서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뤄진 것임. 2021년 판결에서는 DRI가 중앙정부로부터 기능 위임을 받지 않은 한, SCN을 발급하거나 수입업체에게 관세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함. 아울러, SCN을 발급할 수 있는 적격 직원(proper officer)은 최초 수입품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거나, 그의 후임자라고 판결했었음.

자료원: 'SC restores DRI's key powers', BS(11.8); 'DRI Officers can give Show-cause Notices and Recover Duties: SC', ET(11.8)

⑥ 무역협상/대외 관계

○ **러시아, 인도-EAEU FTA 체결에 최선 다할 것**

러시아는 인도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 간의 FTA와 서비스 및 투자에 관한 양자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제1부총리가 지난 화요일(11.13) 언급함.

인도-러시아 무역, 경제, 과학, 기술, 문화 협력 정부 간 위원회(IRIGC-TEC)의 공동 의장을 맡은 자이산카르 외무부 장관과 만투로프는 실무 그룹에 2030년까지 양국 간 무역 목표인 1,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함.

"우리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인도 간의 FTA 체결과 서비스 및 투자에 관한 양자 간 협정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다"고 만투로프는 연설에서 밝힘.

자료원: 'Russia committed to signing free trade pact between India and EAEU, says Manturov', BL(11.13)

○ **재무부, FTA 내 양자 간 투자협정(BIT) 불포함 요구**

재무부는 인도가 추진 중인 FTA의 일부로 양자간 투자협정(BIT)이 협상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 두 가지를 분리할 것을 상공부에 제안했다고 소식통이 밝힘.

“상공부는 투자 문제에 대해 경제부(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제부는 BIT가 FTA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FTA의 투자 챕터에는 보호 또는 중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투자 촉진 및 촉진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 만 포함되기를 원한다.”라고 소식통이 전함. BIT는 두 국가가 서로의 영역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대우와 비차별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임.

참고로 최근 체결된 인도-EFTA FTA의 투자 챕터는 투자 촉진 및 촉진만을 다루고 있으며 투자 보호 기능 및 ISDS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EFTA에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가 포함됨.

자료원: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must not be part of FTAs: FinMin’, BL(11.14)

○ 인도-EU, 그린수소 협력을 위한 로드맵 확정

인도와 유럽연합(EU)이 인프라 개발, 기술 협력, 공급망 강화 등 그린 수소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로드맵을 확정함.

양측은 지난 목요일(11.21) 브뤼셀에서 열린 제10차 인도-EU 에너지 패널 회의에서 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음.

인도 외무부(MEA)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인도-EU 청정 에너지 및 기후 파트너십 2025-28의 세 번째 단계에 대한 “작업 계획”이 채택되었으며, 이는 5 가지 우선 순위 영역에서 더 깊은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임. 우선 분야는 그린 수소, 해상 풍력 에너지, 지역 연결성, 전력 시장 통합 및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및 기후 외교임.

“양측은 인프라 개발 타당성 평가, 규제 및 기술 협력, 공급망 강화를 포함하는 그린 수소 협력을위한 광범위한 의제를 설정했다.”라고 MEA는 토요일(11.23) 발표함.

에너지 패널은 양측의 에너지 전환 우선 순위에 초점을 맞추고 2021-2024 년 인도-EU 청정 에너지 및 기후 파트너십의 두 번째 단계의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음. 양측은 또한 인도와 EU의 그린 수소 정책에 대한 협력을 포함하는 그린 수소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고 MEA는 덧붙였다.

자료원: ‘India, EU firm up extensive roadmap for green hydrogen cooperation’ BS(11.23)

② 이슈 포커스

① 트럼프가 바라보는 세계.. 인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 임기에서도 첫 번째 임기와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국내 의제가 될 것이며, 그의 외교 정책은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급진적인 개혁에 종속될 것임. 재선 캠페인 기간 동안 트럼프 캠프는 '어젠다 47'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미 의회의 권한을 짓밟는 한이 있더라도 시행할 국내외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가 나열되어 있음.

그는 첫 임기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미국의 관대함을 너무 오랫동안 즐겁게 착취해 왔으며 이제 갚을 때가 되었다고 확신해 왔음. 그가 고려하고 있는 정책 변화 목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것임. 트럼프의 주요 표적은 중국이지만 그가 "관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인도도 마찬가지임.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적으로 60% 인상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이는 세계 최대 두 경제 대국의 디커플링을 초래할 수 있음.

인도의 무역 흑자 규모가 353억 달러에 달하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진정한 친구'라고 주장하지만, 트럼프는 인도의 대미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음. 인도는 1기 임기 중 트럼프의 이러한 결심을 맞본 적이 있는데, 2019년에 인도가 대미 수출 상품의 12%인 63억 달러에 해당하는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따라 누렸던 특혜 관세를 철회한 바 있음.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에 대한 관세도 각각 25퍼센트와 10퍼센트 인상되었음. 인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몬드, 호두, 병아리콩, 사과 등 미국에서 수입하는 29개 품목에 관세를 인상하는 보복 조치뿐이었음.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는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함. 미국-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USISPF)의 회장 무케시 아기는 "트럼프는 인도와 중국뿐만 아니라, 수입에 대해서는 막대한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문을 닫을 것이다"라고 경고함. 또한 인도의 수출을 방해할 수 있는 잦은 정책 변경으로 거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말함.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을 겨냥하는 것이 인도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인도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함.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소속 미국-인도 관계 전문가인 텔리스는 "이러한 열기를 재빨리 잠재우며 이번 수출 증가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함. "결국 인도는 중국에 필적할 만한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그는 덧붙임. 또한 이 모든 활동은 본질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민간 주체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인도가 적절한 대체재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함. 국가 안보와 관련된 방위 제품과 같은 틈새 분야는 예외적임, 미국 기업이 중국 대신 인도에서 수입하는 데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 때 인도가 보복 무역 조치로 대응했던 방식보다는 미국을 위해 일부 관세를 양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함. 이러한 협상에 경험이 있는 한 관계자는 "모든 무역 거래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거시적인 그림을 보고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용적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상에 기꺼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함.

마찰이 예상되는 또 다른 분야는 이민자, 특히 불법 이민자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임.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승리 연설에서조차 합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음.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단속 열기를 체감하는 것은

비단 남미인들만이 아님. 인도, 특히 편자브와 구자라트에서 미국으로 피난처를 찾는 불법 이민자(약 72만 5천 명)도 상당수 존재함.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 중 1,100명 이상을 인도로 추방했음. 설상가상으로 트럼프는 현재 연간 85,000개로 제한되어 있는 비이민 노동자를 위한 H1B 비자의 수를 더욱 줄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중 대부분이 인도인이 차지하고 있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배우자의 취업 허가를 철회하고 해당 비자 발급 규정을 훨씬 더 엄격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이는 트럼프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음. 그의 제한적인 무역 정책 조치와 함께 대량 추방은 상품 생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 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인도의 경우 트럼프의 귀환이 다른 나라들처럼 큰 불안감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음. 지난 20년 동안 인도와 미국은 모디 총리가 말한 것처럼 "역사의 주저함을 극복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으며, 그 위상과 깊이, 폭이 모두 성장했기 때문임. 첫 임기 동안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적대감으로 인해 인도를 시진핑의 공격적인 야망에 대항하는 아시아의 보루로 여겼음.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에 방위 기술과 장비를 가장 가까운 동맹국과 동등하게 이전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했음.

그러나 최첨단 드론 판매 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인도에서 제트 엔진 생산을 허용함으로써 인도와 미국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바이든이었음. 바이든과 모디는 또한 반도체 칩, 인공 지능, 양자 컴퓨팅, 무선 통신을 포함한 중요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주요 협력에서 명했음. 텔리슨은 "인도와 미국의 기업가들이 장기적으로 다른 가능한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고 주장함.

전문가들은 자만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며, 트럼프의 수은 같은 성격을 고려할 때 인도가 그의 오른쪽 편에 서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함. 인도와 미국의 관계를 다루는 한 전문가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함. "그러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 인도와 미국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2047년까지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인도에게 미국보다 더 좋은 파트너는 없다. 트럼프의 상업적 접근 방식에 있어 대규모 중산층 시장과 인재 풀을 갖춘 인도는 미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도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또 다른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미국이 직면한 모든 주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공자로 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함. 예를 들어, 인도 제약회사가 2022년에 미국에서 처방된 모든 의약품의 40%를 공급하여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의료비 지출을 연간 2,190억 달러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음.

인도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던져줄 수 있는 기회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중국으로부터의 디리스팅은 미국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이는 인도 기업들에게 여러 주요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모디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비즈니스의 절대적인 편의성을 보장해야 함. USISPF의 무케시 아기는 미국, 호주, 일본, 인도로 구성된 4자 안보 대화(QUAD)를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공동 시장으로 전환하자는 급진적인 제안도 내놓았음. 이들 국가를 모두 합치면 GDP가 35조 달러에 달함. 이 4개국은 이미 기술, 안보 및 기타 주요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의제를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함.

특히 바이든도 추구했던 '메이크 인 아메리카' 정책이 모디의 '메이크 인 인디아' 이니셔티브와 충돌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러한 형태의 미니 양자동맹주의를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음. 또는 그가 미국의 일

부 생산 능력을 인도로 이전하는 것을 장려할지도 모름. 마단의 말처럼 트럼프가 중국을 어떻게 다루기로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음. 그가 중국에 대해 매파적이라면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와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임.

무역 문제 외에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기술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려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바이든의 이니셔티브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포함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은 우려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미국 국내 석유 산업의 생산 확대를 장려하는 트럼프의 '드릴-베이비-드릴' 슬로건은 인도가 전념하고 있는 세계 기후 변화 운동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임.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유럽이 인도에 석탄 퇴출 계획을 서두르라는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음. 또한 트럼프는 자신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회사를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생산업체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지 않을 수도 있음.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구매해 온 450만 명의 인도 디아스포라, 즉 유명하고 번영하는 인도인 디아스포라가 인도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한 가지 더 도움이 될 수 있음. 차기 부통령 당선자인 J.D. 밴스의 부인인 우샤 밴스가 인도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것임.

자료원: 'The world according to Trump', India Today (11.18)

② 인도-중국 무역.. 디커플링 딜레마

지난 10월 러시아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기간 중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은 국경 긴장의 해빙을 알렸지만, 인도는 올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품에 일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무역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또한 인도는 2020년 라다크 갈완의 빙판길에서 발생한 국경 대치 이후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에 대해 필요한 견제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음. 그러나 이번 회계연도 상반기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인도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하면서 모디 정권은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함.

2023년 인도는 다양한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45건의 조사를 개시하고 14건에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반덤핑 조치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되었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도는 34건의 조사를 추가로 개시했음. 이 중 중국산 수입품을 타겟으로 한 조사는 44%인 15건에 달함.

예를 들어, 작년에 시작된 중국산 텔레스코픽 채널 서랍 슬라이더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는 가구 산업에서 사용되는 이 제품의 가격이 자국 시장보다 49% 낮게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는 올해 10월 수입품에 대해 톤당 614달러(51,750루피)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같은 달 인도는 유리 거울과 셀로판 필름을 포함한 다른 중국산 제품 5종에 대해서도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또한 섬유, 종이 및 가죽 염색에 사용되는 유황 블랙 수입품에 대해 톤당 389달러(32,790루피)의 관세가 부과됨. 자동차, 의료 및 전자 산업에 사용되는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에도 kg당 0.93달러(78루피)에서 1.58달러(133루피)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음.

게다가 갈완 충돌 이후 인도는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여러 모바일 앱을 금지함.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인도에 제품을 밀어 넣는 것을 막지는 못했음. FY25년 상반기(2024년 4월~9월)에 중국의 대인도 수입은 505억 달러(426억 루피)에서 563억 달러(474억 루피)로 11.5% 증가함.



ANTI-DUMPING CRACKDOWN

China features in 15 of the 34 anti-dumping probes India has launched this year (Jan. 1-Sept. 30)

SEPT. 30

- ◊ Cold rolled non-oriented electrical steel (China)
- ◊ Refrigerant (China)

JUL. 2

- ◊ Glufosinate and its salt (China)
- ◊ Acrylic fibre (China, Peru, Thailand)

JUL. 1

- ◊ Liquid epoxy resins (China, South Korea, Saudi Arabia, Taiwan, Thailand)
- ◊ Glass fibre and

articles thereof (China, Bahrain, Thailand)

APR. 25

- ◊ PVC suspension resins (China, Indonesia, Japan, South Korea, Taiwan, Thailand, USA)

APR. 19

- ◊ Plastic processing machines (China, Taiwan)

APR. 8

- ◊ Pretilachlor, a herbicide (China)

APR. 3

- ◊ Insoluble sulphur (China, Japan)

APR. 2

- ◊ Potassium Tertiary Butoxide/ Sodium Tertiary Butoxide (China, USA)

MAR. 28

- ◊ Saccharin (China)

MAR. 27

- ◊ Acetonitrile (China, Russia, Taiwan)

FEB. 14

- ◊ Textured tempered coated and uncoated glass (China, Vietnam)

JAN. 1

- ◊ Acrylic solid surfaces (China)

The country of origin or the one exporting in ()
Source: FIEO

반면, 인도의 수출은 76억 달러(64,068루피)에서 69억 달러(58,160루피)로 9.2% 감소했음. 이로 인해 인도의 대중 무역 적자는 FY24 상반기 429억 달러(361억 루피)에서 494억 달러(416억 루피)로 15퍼센트 증가해 중국과의 무역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었음.

때때로 덤핑으로 이어지는 중국산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은 견고한 경제 성장에 따른 인도 산업의 수요 급증임. "빠른 성장을 원하는 일부 부문에서는 국내 업계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인도수출단체연합회(FIEO)의 사무총장 겸 CEO인 아제이 사하이는 지적함. "국내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일까?" 그는 통신, 전자제품, 기계류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의 총 수입액 중 약 50%를 차지한다고 덧붙임.

예를 들어, 인도는 휴대폰의 순수출국이지만 부품 및 구성품의 주요 제조업체는 아님. 이러한 부품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음. 이제 인도 정부의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제도가 부품 및 구성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3~5년 내에 국내 제조가 개선되어 중국 수입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마찬가지로 인도는 세계의 제약 수도가 되기를 열망하지만, 의약품 생산에 들어가는 원료인 원료의약품(API)의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중국의 내수 성장 둔화로 인해 과잉 생산(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만큼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수출을 늘려야 경제를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의 수입이 늘고 있음. 중국의 이번 회계연도 3분기(2024년 7~9월) 경제성장률은 4.6%로, 작년 초 이후 가장 느리고 목표치인 약 5%에 미치지 못했음. 이 나라의 부동산 및 인프라 부문은 포화 상태이며 침체되어 있음. 철강, 알루미늄, 합금철 및 기타 건설용 원자재를 생산하는 산업과 같은 연관 산업에서 과잉 생산이 발생함. 게다가 중국의 제조업은 경쟁력이 있지만 반드시 대체 불가능한 것은 아님. 연구에 따르면 수출 산업은 대부분 조립 기반임. 제품의 기술 집약도가 높아짐에 따라 핵심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은 단점이 될 것임. 한편, 중국은 엄격한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면서 의류와 신발 등 노동 집약적인 분야에서 철수하고 있음. 대신 자동차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시장으로 밀어내고 있음. 소비 지출 약세도 중국 국내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음.

“중국 경제가 너무 좋지 않다. 따라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값싼 상품을 덤핑할 것이다.”라고 사하이는 예상함. 또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중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전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미국과 유럽 경제에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규제는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으로 더욱 심해질 것임. 그는 “중국이 이러한 시장을 잃게 되면 대체 시장을 찾아야 하므로, 중국이 인도에 더 많은 [제품을] 공급하거나 덤핑하도록 부추길 수도 있다.”고 경고함.

인도 역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음.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 시장에 중국 제품이 범람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높은 퀄리티 제품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 관리 명령(QCO)을 통해 이루어짐. 인도 상공부 산업진흥청(DPIIT)이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제품에 대해 QCO를 발행하는 반면, 인도 표준국(BIS)은 여기에 지정된 제품에 대한 인증 및 집행 기관의 역할을 함. 실제로 수출국은 BIS에 해당 제품을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을 공급할 수 없음.

인도에서 QCO를 발급할 때는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지정된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됨. 하지만 최근 모디 정권은 장난감, 전자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원료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제품을 선정해 국내 제조업의 품질 향상과 수입 감소를 목표로 삼고 있음. 또한 통신, 인프라, 전력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정부 조달에서 중국산 공급에 제한을 두기도 했음.

한편 투자 측면에서는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인도에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안전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음. “인도는 매우 민감한 이웃에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어디에서 오는지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환영할 수는 없다.”라고 그녀는 모디-시진핑 회담 몇 시간 전 미국 와튼스쿨에서 연설하면서 밝힘. 시타라만은 특정 국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제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때로는 궁극적인 수혜자가 개인이 아니라 어디 출신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함.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가 무역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사라지기를 바랄 수 없다고 말함. 델리 자와 할랄 네루 대학교의 전 경제학 교수인 비스와짓 다르(Biswajit Dhar)는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긴장 완화는 인도 정부가 중국과의 탈동조화가 단기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라고 지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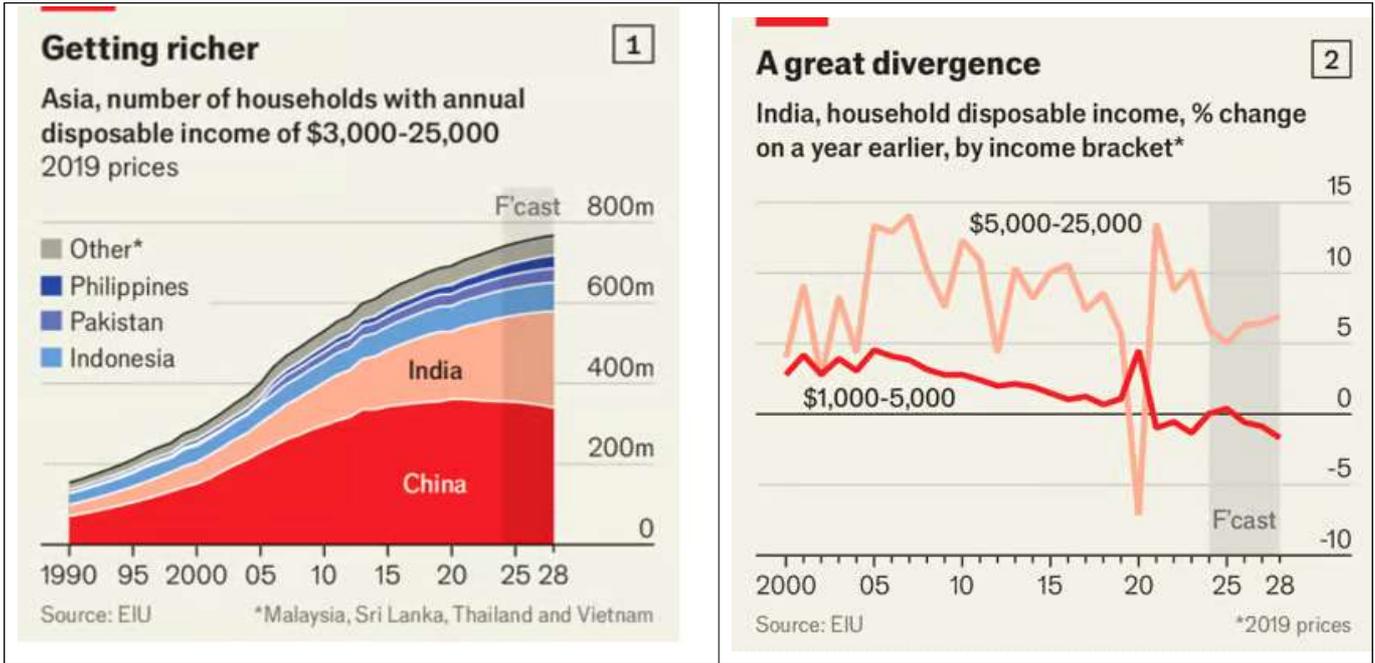
실제로 2023-24년 경제 조사에서 수석 경제 고문인 V. 아난타 나게스와란은 중국의 FDI 증가가 인도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인도가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에 대한 입장을 크게 변화시키는 서막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결정이 없습니다.”라고 다르 교수는 평가하며, “점차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전이 있었다... 양국 관계의 역동성을 촉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경제적 현실이다.” 라고 지적함. 전통적인 무역 품목 외에도 인도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전기차와 같은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것임. 그리고 정치적 관계의 개선은 더 많은 수입으로 이어질 뿐임. 다르 교수는 중국산 수입품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지난 4년 동안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가 왜 비생산적이었는지 현실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함.

자료원: 'India-China trade | Decoupling dilemma', India Today (11.15)

③ 아시아 국가 중 인도에서만 중산층이 늘고 있다

아시아의 중산층은 예전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분석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아시아 중산층 가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6%였음. 지난 10년 동안에는 2%로 둔화되었음. 중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는 그 수가 줄어들었음. 중산층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인도를 제외하면 아시아의 중산층은 정체된 상태임. 개발도상국 아시아 인구의 72%에 해당하는 27억 명에 달하는 중산층 인구의 미래가 위태로움.



중산층의 성장 속도는 빈곤 감소나 국제 대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문제임. 권한이 강화된 중산층은 개인의 권리를 확대하고 보다 책임감 있는 국가로 이어질 수 있음. 중산층의 증가가 아동 노동에 대한 규제를 촉진한다는 주장도 유력함. 기술 변화로 숙련 노동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중산층 부모들은 자녀를 공장에 보내는 대신 교육을 시키려는 유인을 갖게됨. 대부분의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에는 중산층이 많음.

'중산층'은 국가별로 고정된 소득 기준을 사용하여 절대적으로 정의하거나, 국가 소득 분포의 중심에서 측정하여 상대적으로 정의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매 회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시아 중산층을 추적할 수 있는 척도를 만들었음. '중산층'을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고 환율을 고정하여 연간 가처분 소득이 3,000달러에서 25,000달러 사이인 가구로 정의하는 절대적인 측정 방식을 선택했음. 이번 데이터는 아시아의 약 80%에 해당하는 37억 명을 대상으로 하며, 일본, 대만,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 부유한 경제 국가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등 데이터가 부족한 국가는 제외되었음.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중산층의 성장이 꾸준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임. 1990년대와 2000년대 동안 아시아에서는 매년 평균 1,900만 가구가 중산층에 진입했으며,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음. 이러한 가속화는 2010년대 들어 주춤해졌음.

2021년 이후 중산층으로 편입된 가구는 연간 1,200만 가구에 불과하며, 성장의 대부분이 인도에서만 이뤄지고 있음. 인도가 없다면 팬데믹 이후 중산층 추가 비율은 연간 170만 가구로 떨어질 것임. EIU의 예측에 따르면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의 중산층은 곧 성장을 멈추고 심지어 축소될 수도 있음. 이는 단순히 전체 인구 증가율의 둔화 때문만은 아님. 인도네시아의 중산층은 인구학적 순풍에도 불구하고 정체되고 있음. 중국의 중산층은 인구보다 먼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그 변화의 속도도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 조사 대상 9개국 중 6개국에서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증가세를 멈췄고, 9개국 중 4개국에서는 감소하고 있음.

인도에서도 인상적인 중산층 성장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음. 인도 중상류층에 속하는 1억 3,000만 가구, 즉 5,000~25,000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이 성장을 주도했음. 반면, 1,0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1억 5,000만 가구의 실질 소득은 정체되어 있음.

이는 부분적으로는 상향 이동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금세기 들어 인도의 중상류층이 1억 가구 이상 증가했음. 그러나 이는 또한 인도 내 부의 격차를 반영하기도 함. 팬데믹 이후 가구당 실질 소득은 중상위층보다 중하위층에서 9% 더 느리게 증가했음.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아시아 중산층의 성장이 정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분적으로는 부유해짐에 따른 부산물임.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중산층(절대적인 수치로 측정)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개발도상국 아시아에서는 이것이 전부 아님.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중산층의 발목을 잡고 있음. 몇몇 개발도상국에서는 노동력의 비공식화가 만연해 있음. 2021년 연구에 따르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비공식 고용으로 전락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이후 소득이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코로나19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는 2020년 이후 비공식 고용이 5% 포인트 증가하여 근로자의 61%에 달했음. 한편 태국에서는 높은 가계 부채가 중산층 대출자의 목을 조이고 있음.

한때 신뢰할 수 있었던 성장 동력도 작동을 멈췄음. 지난 10년 동안 외국인 직접 투자와 수출 덕분에 베트남의 중산층은 연평균 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역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했음. 하지만 이는 199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성장한 속도의 절반에 불과함. 베트남은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노동 생산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뒤처져 있고 기업들은 숙련된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음.

일부 지역에서는 실질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낮아진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많은 중산층 유권자들이 분노하고 있음. 특히 중요한 것은 식료품 가격임. 개발도상국 아시아에서는 식료품이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비해 미국은 9%에 불과함.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식량 가격이 대부분 안정적이었지만, 2007~08년과 2010~12년 가뭄으로 인해 식량 가격 위기가 다시 발생했음. 급등세는 완전히 되돌리지 못했음. 유엔에 따르면 2010년대 식량 가격은 2000년대보다 명목 기준으로 평균 46% 더 높았음.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곡물 시장의 혼란은 고통스러운 영향을 미쳤음. 지난 10년 동안 평균 식량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에 비해 15% 더 상승했음.

이것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시아는 번영의 정도에 비해 사회 안전망이 현저히 취약한 편이며, 일부 순위에서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음. 일부 지역에서는 지도자들이 유인물로 대응하고 있음. 태국은 현재 연 소득 84만 바트 미만의 태국인들에게 1만 바트(3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다른 곳에서는 중산층의 분출된 분노가 권력자들을 위협하고 있음. 인도 중산층은 하층민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선거에서 집권당인 BJP를 응징한 것은 바로 이들이었음. 델리의 싱크탱크인 개발도상사회연구센터에 따르면 이 당의 중산층 득표율은 2019년 선거에 비해 3% 포인트 하락했음.

말레이시아의 사례는 교훈적임. 1990년대와 2000년대, 떠오르는 활동적인 중산층은 언론의 자유 확대, 깨끗한 선거, 보안 단속의 종식 등 개혁을 요구했음. 정치학자인 요한 사라바나무투는 "말레이계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중산층의 의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에리포르마시가 인종적 분열을 넘어 의견을 통합할 수 있었다"고 말함.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중산층이 위축되면서 개혁은 사라지고 근본주의 이슬람 정치가 부활하는 등 정체성 정치가 부상하고 있음.

현재 아시아의 중산층 침체가 개혁에 대한 더 많은 요구로 이어질지, 아니면 자유주의 정치의 해체로 이어질지 말하기는 너무 이름. 어느 쪽이든 불만을 품은 중산층은 계속 존재할 것임.

자료원: 'The surprising stagnation of Asia's middle classes', The Economist (11.21)

④ 인도 승용차 시장, 해치백에서 SUV로 대세 굳혀

인도 전역에서 성장하는 중산층이 개인주의의 궁극적인 표현인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음. 인도의 도로에 있는 자동차 수는 2012년 1,900만 대에서 2022년 4,900만 대로 증가했음.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같은 기간 17대에서 34대로 두 배로 증가함. 포르쉐 718 카이맨 GTS를 운전하는 호르마즈드 소랍지는 자동차 전문 잡지 Autocar India의 편집장으로 "현재 인도에서 자동차에 대한 사랑은 사상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라고 말함. 하지만 자동차 소유가 보편화되면서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도 달라졌음.



첫 번째 큰 변화는 사람들이 구매하는 차종에 있음. 불과 5년 전만 해도 인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두 대 중 한 대는 해치백이었음. 지난달 인도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통해 33억 달러를 조달한 한국 기업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현재는 4대 중 1대로 감소한 반면 신규 판매의 50% 이상이 SUV임.

SUV 판매가 호황을 누리는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도로 사정이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임. 인도 전역의 도로 교통 부서는 척추나 기계의 건강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잘못 설계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함. 사고, 즉 도로와 차량 바닥 사이의 높이는 인도에서 자동차 구매자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임.

동시에,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는 수만 킬로미터의 고품질 고속도로를 추가했음. 이로 인해 주말 및 당일 여행이 급증함.. "인도는 여행을 좋아하는 나라이며, 오늘날 인도에서 가장 저렴한 휴가는 드라이빙 휴가"라고 SUV 전문 자동차 제조업체인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의 아난드 마힌드라는 말함. "게다가 큰 차가 필요한 대가족이 많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라고 덧붙임. 이 회사의 최신 제품인 견고한 오프로더는 판매 시작 1시간 만에 176,000건의 예약을 받았음.

두 번째 변화는 자동차 구매자들이 원하는 것임. 최근까지만 해도 안전은 거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음. 하지만 인도의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인 타타 모터스가 생산한 소형 SUV인 타타 넥슨을 통해 상황이 바뀌었음. 이 차는 국제 테스트에서 최초로 별 다섯 개의 안전 등급을 받았고, 이러한 안전성을 홍보한 최초의 차량임. 방갈로르에 거주하는 통신 엔지니어로 세단인 포드 아이콘을 운전하며 Reddit에서 342,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r/CarsIndia 포럼을 운영하는 비네이는 잠재 구매자들이 안전을 위해 일부 단점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말함. 이 역시 시속 120km의 고속 주행이 실제로 가능한 고속도로가 보급된 덕분임. 넥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많이 팔린 SUV가 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음. 이제 자동차 광고에는 안전 등급이 자주 인용됨.

세 번째는 비용 대비 가치임. "이전에는 구매자들이 연비에 더 집중했다."라고 브로커인 코탁 증권에서 자동차 산업을 담당하고 사람 운반용 차량인 마루티 스텔스 에르티가를 운전하는 아룬 아가르왈(Arun Agarwal)은 말함. 인도인들은 더 나은 경험을 위해 점점 더 많은 비용을 기꺼이 지출하고 있음.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 판매 가격은 작년까지 반세기 동안 491,000루피(5,800달러)에서 659,000루피로 3분의 1이 상승했음. 이는 부분적으로는 갭통 해치백보다 안전하고 큰 차가 더 비싸다는 가격 상승에 기인함.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최고의 자동차를 원하기 때문임. 일부 모델의 경우 최고급 모델이 판매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이는 팬데믹 이전의 절반 이하에서 증가한 수치라고 맥쿼리 은행의 분석가들은 말함.

게다가 인도의 저렴한 인터넷 연결이 널리 보급되면서 소비자들은 항상 온라인에 접속하는 데 익숙해졌음. 가장 저렴한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도 터치스크린 콘솔을 요구함. 인도인들이 교통 체증에 보내는 시간은 엔지니어링보다 엔터테인먼트에 우선순위를 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의 기술을 기반으로 구매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고 Tata Motors의 승용차 사업부 사장인 Shailesh Chandra는 말함.

사회적 위신도 중요한 역할을 함. 10년 전만 해도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지위가 부여되었음. 오늘날에는 자동차의 제조사와 기능으로 소유자를 구분할 수 있음. 인도 대부분의 더위, 습도, 먼지, 공해에도 불구하고 선루프는 이러한 기능 중 하나가 되었음. 마힌드라는 "차고에 어떤 차를 주차하고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느냐에 따라 건물 내 순위가 결정된다."라고 말함.

자료원: 'India is turning into an SUV country', The Economist(11.14)

3 시장트렌드

1 인도의 대 아프리카 교역 및 무역수지 현황 [\[상세보기\]](#)

- 인도는 중국, EU에 이은 아프리카의 제 3대 교역국가
- 세계 3위의 에너지 수입국인 인도는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와 전략적 관계 유지
- 인도를 우리의 새로운 수출 기지로 활용하여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 확대 필요

2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 물류 정책이 가져올 변화 [\[상세보기\]](#)

- 향후 10년간 포괄적인 물류 마스터 플랜을 통해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것에 중점
- 2029년까지 1개의 국제 메가 물류 허브, 1개의 국내 메가 물류 허브, 5개의 주 단위 물류 허브, 5개의 지역 물류 허브 25개의 지역 물류 노드를 포함하여 총 1만 에이커 이상의 전용 물류 인프라를 개발할 계획

3 UPI가 바꾸고 있는 인도 경제 [\[상세보기\]](#)

- 2023년에 약 1,176억 건의 거래 처리, 2029년까지 4,390억 건으로 급증 전망
-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부탄, 네팔, 스리랑카, 프랑스, 모리셔스에서 사용 가능, 더 많은 국가로 확대 전망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도 정부의 그린수소 확대 정책 [\[상세보기\]](#)

- 2030년까지 연간 500만 톤의 그린 수소 생산 목표

5 2024 인도 화학산업 정보 [\[상세보기\]](#)

-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인도 화학 산업, 여러 분야에 걸쳐 빠르게 성장
- 중국 대체할 공급망 허브로 주목받으며 글로벌 화학 시장에서 위상 강화

6 인도 정부, CCTV 관련 신규 안전 요구사항 발표 [\[상세보기\]](#)

- CCTV를 통한 보안사고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제품에 의무 테스트 부과
- 추후 자국 내에서 제작된 CCTV에 유리한 정책 펼칠 것으로 전망

7 인도 정부, CCTV 관련 신규 안전 요구사항 발표 [\[상세보기\]](#)

- CCTV를 통한 보안사고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제품에 의무 테스트 부과
- 추후 자국 내에서 제작된 CCTV에 유리한 정책 펼칠 것으로 전망

4 주요 경제지표

① 對인도 국별 투자동향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	2022-23 (4월-3월)	2023-24 (4월-3월)	2024-25 (4월-6월)	누계투자액 (2000.4월-2024.6월)	비중
1	모리셔스	6,134	7,970	3,212	175,058	25%
2	싱가포르	17,203	11,774	3,912	163,855	24%
3	미국	6,044	4,998	1,508	66,702	10%
4	네덜란드	2,498	4,924	2,451	51,134	7%
5	일본	1,798	3,177	629	42,547	6%
6	영국	1,738	1,216	74	35,165	5%
7	UAE	3,353	2,924	555	19,058	3%
8	케이먼제도	772	342	189	15,455	2%
9	독일	547	505	101	14,744	2%
10	사이프러스	1,277	806	615	14,065	2%
-	기타	4,670	5,787	2,932	97,258	14%
합계		46,034	44,423	16,178	695,041	100%

*자료원: DPIIT

② 對인도 산업별 투자동향 (단위: 백만달러)

순위	분야	2022-23 (4월-3월)	2023-24 (4월-3월)	2024-25 (4월-6월)	누계투자액 (2000.4월-2024.6월)	비중
1	서비스*주1	8,707	6,640	3,994	113,490	16%
2	컴퓨터 SW&HW	9,394	7,973	2,745	105,629	15%
3	무역	4,792	3,865	460	43,856	6%
4	통신	713	282	455	39,781	6%
5	자동차	1,902	1,524	390	36,659	5%
6	건설활동(인프라)	1,703	4,232	666	34,584	5%
7	건설개발*주2	146	255	31	26,642	4%
8	제약	2,058	1,064	236	22,764	3%
9	화학(비료제외)	1,850	844	563	22,709	3%
10	신재생 에너지	2,500	3,764	1,037	18,925	3%
-	기타	14,071	16,043	5,601	230,002	34%
합계		46,034	44,423	16,178	695,041	100%

*주1: Financial, Banking, Insurance, Non-Financial / Business, Outsourcing, R&D, Courier, Tech. Testing and Analysis 등

*주2: Townships, housing, built-up infrastructure 등

*자료원: DPIIT

③ 인도 대외교역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1	2022	2023	2024.1~9월
수출	395,425	453,291	431,477	333,487
수입	572,909	720,179	670,304	521,380
수지	-177,484	-266,888	-238,827	-187,893

*자료원: World Trade Atlas

④ 인도 국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	2021	2022	2023	2024.1~9월
1	미국	71,184	80,009	75,673	61,084
2	UAE	25,380	31,348	33,019	28,094
3	네덜란드	10,225	18,558	23,118	19,880
4	싱가포르	10,630	11,810	12,039	11,918
5	중국	23,044	15,151	16,237	11,627
6	영국	10,373	11,226	12,428	10,738
7	사우디	8,224	10,048	10,837	8,997
8	방글라데시	14,724	13,980	11,244	8,372
9	독일	9,512	10,463	9,669	7,784
10	남아공	5,993	8,237	8,022	6,554
-	기타	206,136	242,461	219,191	158,439
총계		395,425	453,291	431,477	333,487

*자료원: World Trade Atlas

⑤ 인도 품목별^{HS2단위} 수출 동향 (단위: 백만달러)

순위	HS 코드	품목	2021	2022	2023	2024.1~9월
1	27	광물연료	56,145	98,086	89,304	62,172
2	85	전기기기/부품	18,826	26,471	32,325	28,171
3	84	원자로, 보일러, 기계장치 등	24,180	27,511	29,312	24,383
4	71	보석류	38,211	39,353	33,430	22,429
5	30	의약품	19,463	19,758	21,302	17,544
6	87	차량/부품(철도, 전차제외)	18,898	21,258	20,824	16,466
7	29	유기화학품	21,174	21,838	19,390	16,043
8	10	곡물	12,472	14,147	11,295	8,408
9	72	철강	21,201	15,374	11,828	7,956
10	73	철강제품	8,363	9,906	9,745	7,483
-	-	기타	156,492	159,589	152,722	122,432
총계			395,425	453,291	431,477	333,487

*자료원: World Trade Atlas

⑥ 인도 국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	2021	2022	2023	2024.1~9월
1	중국	87,478	102,427	99,624	81,088
2	러시아	8,251	34,015	60,612	48,573
3	UAE	43,027	52,673	45,494	46,699
4	미국	41,310	51,326	43,174	30,930
5	이라크	26,204	37,228	29,200	22,271
6	사우디	27,280	43,323	33,648	21,752
7	인도네시아	16,718	28,495	22,641	18,215
8	한국	17,069	20,696	21,367	15,596
9	스위스	29,506	16,297	19,661	15,271
10	싱가포르	18,090	24,313	21,527	15,112
-	기타	257,976	309,386	273,356	205,873
총계		572,909	720,179	670,304	521,38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⑦ 인도 품목별^{HS2단위} 수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순위	HS 코드	품목	2021	2022	2023	2024.1~9월
1	27	광물연료	169,072	260,325	220,653	166,708
2	85	전기기기/ 부품	56,668	69,835	76,067	62,889
3	71	보석류	88,275	78,111	72,599	62,729
4	84	원자로, 보일러, 기계장치 등	48,470	54,770	57,067	45,489
5	29	유기화학품	27,213	29,831	27,268	19,671
6	39	플라스틱/제품	19,242	22,734	22,592	16,396
7	72	철강	11,670	16,656	18,911	13,251
8	15	동식물 오일/왁스	17,462	21,399	16,567	12,195
9	90	광학/ 의료기기 등	11,210	11,322	12,626	10,151
10	74	구리/제품	6,691	7,558	9,075	8,033
-	-	기타	116,936	147,638	136,878	103,868
총계			572,909	720,179	670,304	521,38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㉘ 한-인도 교역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1	2022	2023	2024.1~10월
對인도 수출	15,603	18,870	17,950	15,560
수입	8,056	8,897	6,728	5,259
수지	7,547	9,973	11,222	10,301

*자료원: KITA

㉙ 한국의 對인도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백만달러)

순위	HS 코드	품목	2021	2022	2023	2024.1~10월
1	85	전기기기/부품	2,687	4,342	3,996	3,940
2	72	철강	2,429	2,698	2,597	2,075
3	39	플라스틱/제품	2,065	2,016	2,161	1,835
4	84	원자로, 보일러, 기계장치 등	1,744	1,960	1,938	1,776
5	27	광물연료	1,298	1,159	1,161	1,052
6	29	유기화학품	1,168	1,047	1,235	1,039
7	90	광학/의료기기 등	433	564	620	598
8	87	차량/부품(철도, 전차제외)	854	936	1,003	565
9	40	고무/제품	338	344	312	310
10	79	아연/제품	309	367	445	256
-	-	기타	2,278	3,437	2,482	2,114
총계			15,603	18,870	17,950	15,560

*자료원: KITA

㉚ 한국의 對인도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백만달러)

순위	HS 코드	품목	2021	2022	2023	2024.1~10월
1	27	광물연료	1,901	2,681	1,657	1,111
2	29	유기화학품	703	778	774	704
3	76	알루미늄/제품	1,815	1,614	896	517
4	72	철강	537	410	447	384
5	84	원자로, 보일러, 기계장치 등	262	313	309	257
6	85	전기기기/부품	165	200	198	221
7	78	납/제품	227	262	250	192
8	23	식품산업 잔유물/웨이스트, 조제사료	184	246	230	167
9	87	차량/부품(철도, 전차제외)	145	149	172	142
10	52	면	248	201	153	131
-	-	기타	1,869	2,043	1,642	1,433
총계			8,056	8,897	6,728	5,259

*자료원: KITA

⑪ 기타 경제지표

GDP 성장률	2021	2022	2023	2024	2025
	9.7%	7.0%	7.8%	6.8%(e)	6.7%(e)
기본금리	2022.9.30 이후	2022.12.17 이후	2023.2.8 이후	-	-
	5.90%	6.25%	6.50%	-	-
산업생산	2024.5월	6월	7월	8월	9월
	5.9%	4.7%	4.8%	-0.1%	3.1%
PMI지수	2024.7월	8월	9월	10월	11월
	58.1	57.9	58.3	59.1	59.5
도매물가 상승률	2024.6월	7월	8월	9월	10월
	3.36%	2.04%	1.31%	1.84%	2.36%
소매물가 상승률	2024.6월	7월	8월	9월	10월
	5.08%	3.54%	3.65%	5.49%	6.21%
환율 (월평균)	2024.7월	8월	9월	10월	11월(11.27 기준)
	83.583	83.886	83.786	84.024	84.340

*자료원: IMF(GDP성장률), RBI(기본금리, 소매물가상승률),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산업생산), PMI India, the Commerce Ministry(도매물가상승률), Investing.com(월평균 환율)
<끝>